

사랑의열매

ISSUE **144**
2019 APRIL 

나눔으로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장애인들의 즐거운 나들이를 돕습니다
함께 즐겨요, 행복한 봄날

인천 최초 부부 아너 이만우·성숙희 부부
“하얗게 칠한 공장 울타리처럼
누군가에게 희망의 이정표가 되고 싶어요”

‘같이 있어 가치 있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봄입니다. 4월은 식목일과 한식, 지구의 날 등 다양한 기념일이 있는 달이기도 하죠.

그중에서 특히 잊지 말아야 할 날이 있습니다. 바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입니다.

이달 특집은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단순히 그들의 어려운 사정을 돕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누려야 할 문화적 혜택을 차별 없이 경험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배려와 응원이 아닐까요?



‘같이 있어 가치 있다’는 사랑의열매 SNS 이벤트 ‘가훈은 나눔을 믿고’에서 1등을 한 필리아 님 가족의 가훈입니다. 가족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 없이 모두가 함께 살아가며 함께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사랑의열매도 열심히 달려겠습니다.

사랑의열매 공식 SNS

인스타그램 @fruits_of_love 페이스북 @chestkorea 트위터 @nanumin 블로그 blog.naver.com/nanum_in
유튜브 www.youtube.com/channel/UCJCLW5U-CQXMvLrXDoiawOg



나눔 태그

#나눔스타그램 캠페인

세상을 따뜻한 온기로 가득하게 만들어요!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모습, 일상의 따뜻한 사랑과 온정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을 담아주세요.

.....

참여방법 일상의 따뜻한 모습, 나눔과 봉사의 현장, 또는 일상에서 만난 사랑의열매를 SNS에 올려주시고 해시태그를 달아주세요.

필수 해시태그
#나눔스타그램 #사랑의열매

당첨자 선정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해시태그와 함께 사진을 올려주신 분 중 5명을 선정해 커피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에게는 개별 연락드립니다.



CONTENTS



사랑의열매

vol. 144 2019 / 04

발행인 예종석

발행일 2019년 4월 / 통권 144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6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마케팅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 편집디자인

한경매거진(주) 02-360-485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집 - 함께 즐겨요, 행복한 봄날

- 04 장애인의 튼튼한 다리가 되어주는
여행 동반자 그린라이트
- 06 장애청년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
- 08 세상을 향한 당당한 발걸음

10 커버스토리

인천 최초 부부 아너
이만우·성숙희 부부

14 따뜻한 세상을 꿈꾸며

(주)우아한형제들 김봉진 대표의 기억 기부 스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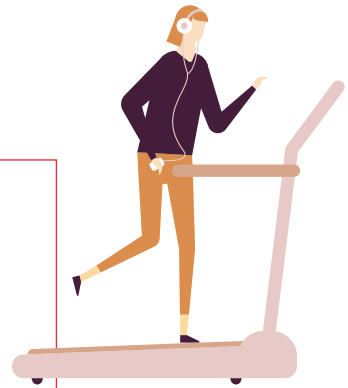
18 이슈

소액 기부 문화 활성화 입법 공청회 현장을 가다

20 나눔 더하기

지금 TV와 라디오에선 사랑이 On Air





22 땡큐 사랑의열매

내 나이가 어때서, 봉사하기 딱 좋은 나인데!

26 착한기업

S-OIL에서 내일의 희망을 가득 채워요

30 나눔리더

우리 이제 막 '부부 나눔리더' 됐어요

32 나의 '첫'사랑

남편 뜻 따라 나눔의 삶 실천하는
김기호 대구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34 나눔 리포트

주목해야 할 나눔 전망

36 장석주의 독서 처방전

체중계 숫자에 울고 웃는 당신에게

38 박미향의 '먹을 수 있어 좋구나'

동실동실 배 위에서 먹는 도다리썩국

40 차 한잔의 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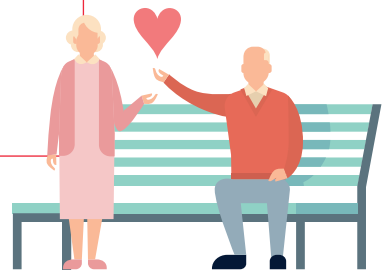
피로를 훌훌 날리는 봄날의 티타임

44 전국 뉴스

중앙회, 전국 17개 지역별 소식

54 이달의 아너 소사이어티

56 독자 페이지



함께 즐겨요 행복한 봄날

향긋한 봄 풍경에 꽃구경을 떠나는 이들로 전국이 들썩인다.
하지만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 가는 것도 쉽지 않다.
물리적 이동과 여행은 물론,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장애인 지원 사업을 소개한다.
모두 함께 꽃향기 가득한 봄을,
그리고 인생의 봄날을 즐길 수 있기를.



PART
1

장애인의 튼튼한 다리가 되어주는 여행 동반자

2015년에 설립된 '그린라이트'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생활 전 영역에 걸친 이동 편의를 제공한다.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과 여행을 떠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비영리 기관을 위한 차량을 무상대여하는 등 장애인들의 이동의 즐거운 동반자가 되어주는 그린라이트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소개한다. 사진 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여행의 진짜 재미를 발견하는 초록여행

기아자동차와 그린라이트가 함께 하는 국내 대표 사회 공헌 사업으로, 장애인을 위한 여행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초록여행은 가족, 친구 등 함께하고 싶은 사람과 원하는 곳으로 떠날 수 있어 여행의 진정한 재미를 느낄 수 있다. 휠체어 탑재 가능한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여행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유류비와 여행 경비를 지원하며 직접 운전하기 어려운 경우 운전기사도 신청할 수 있다.



해외 장거리 여행도 문제없는 수동 휠체어 전동화 키트 세어링

현대자동차그룹이 사랑의열매에 기탁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수동 휠체어를 전동처럼 쓸 수 있는 전동화 키트를 무상 대여하고 있다. 특히 전동화 키트는 리튬 이온 배터리 적정 용량으로 항공기 반입이 가능해 해외여행 갈 때도 문제없다. 직장과 집 등 원하는 장소에서 대여와 회수가 이루어지며, KTX광명역과 김포공항, 그린라이트 사무실에서도 대여 가능하다.

인원이 많아도 거뜰! 비영리 기관의 여행을 돕는 민들레카

비영리 기관을 위한 차량 무상대여 프로그램으로, 한국도시가스협회와 함께 한다. 민들레 흩날리듯 바람에 날리듯 이동 취약 계층도 자유롭게 움직이길 바라며 '민들레카'라고 이름 지었다. 이동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11인승 승합, 전세 버스, 휠체어 특장 버스를 대여해준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이용 건수 9,000여 건, 7만여 명이 전국 200만km를 달려 즐거운 여행을 했다.



참신한 아이디어로 편리함 더하는 장애인 앱 개발 콘테스트

현대오토에버가 사랑의열매를 통해 지원하는 사회 공헌 사업이다.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장애 접근성까지 고려한 앱은 미흡한 실정이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장애인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생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참신한 아이디어는 실제 앱으로 제작한 후 앱스토어에 등록해 장애인이 직접 사용할 수 있게 한다.

PART
2

장애청년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세상 밖으로 나간 청년들이 있다.

장애 청년과 비장애 청년이 하나로 뭉쳐 직접 계획을 짜는 해외연수 프로그램 '장애청년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는 패기있는 청년들과 함께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다. 사진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류나현

장애·비장애 청년이 함께 하는 해외 연수

신한금융그룹과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주관하고 사랑의열매가 지원하는 '장애청년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이하 장애청년드림팀)가 지난 2005년 시작된 이래로 벌써 15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모집 기수마다 뜨거운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하나. 장애·비장애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유일의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기 때문. 2018년까지 892명의 청년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넓은 세상을 만났다. 2005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협회 주도의 기획 테마로 운영했으나, 점점 회를 거듭할수록 청년들이 직접 다양한 테마의 연수를 기획하며 전 세계 장애인 복지 현장과 장애인의 삶을 살펴보고 왔다. 특히 작년에는 최초로 자폐 청년으로 구성된 팀이 영국으로





연수를 떠나는 등 장애 관련 이슈 중에서도 다소 관심이 적었던 분야까지 주제의 폭을 넓혔다.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도전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만 18~34세의 장애·비장애 청년이라면 누구나 접수 가능하다. 참가 신청은 크게 개인 지원과 팀 지원으로 나뉜다. 개인 지원은 아태 청년과 한국 청년이 한국에서 연수를 받는 'Leave No One Behind!', 아시아 또는 아프리카에서 진행되는 '장애인의 빈곤과 국제 개발' 등 두 가지 기획 테마를 주제로 참가자를 선발한다. 팀 지원은 자유 주제로 공모가 진행된다. 아시아, 아프리카, 북·남미, 유럽, 오세아니아 대륙 내에서 희망하는 연수 국가를 선택할 수 있다.





장애 청년의 비율은 50%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며, 활동 보조·수어·영어 통역 등 추가 지원이 불가한 만큼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장애청년드림팀 홈페이지(6dreams.org)에서 지원하기 메뉴를 클릭해 지원하면 된다. 개인 지원자는 연수지원서, 자기소개서, 서약서를 내야하고, 팀 지원 시 연수 활동 상세 계획이 담긴 연수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연수 준비도, 연수 이해도, 팀워크, 의사소통 능력, 기관 섭외 및 확장 가능성을 심사하며 서류 전형, 오디션, 면접 전형을 거쳐 최종 선발한다. 장애청년드림팀에 최종 선발되면 왕복 항공권을 포함해 해외 연수비·체류비 전액을 지원해준다. 이후 팀 세미나, 발대식, 국내 캠프

등을 통해 연수를 준비하고, 해외 연수를 다녀온 후에는 연수 보고회와 시상식을 통해 연수 결과를 발표하며 활동을 마무리한다.

장애청년드림팀의 도전은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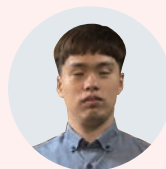
MINI INTERVIEW



“장애를 숨기던 이무기에서 당당한 용이 될 수 있게 만들어준 곳”

장애청년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 14기 ‘칠룡이나르샤’ 팀 류나현 한양대학교 공과대학에 재학 중인 청각장애인으로 이공계 청각장애인 취업에 대한 지원이 미

비한 현실에 아쉬움이 많았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청각장애 청년들과 함께 미국에서 그 해답을 찾기자 떠났다. 미국은 STEM 교육을 바탕으로 이공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시스템이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으며,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도록 지원하고 있었다. 당사자들이 직접 찾아보고 정보를 얻어야 하는 한국 현실과 차이를 실감했다. 구회인만 지원하는 기관인 벨 재단을 방문했을 때도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녀는 해외 연수를 다녀오기 전까진 청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연수 이후 더 이상 청각장애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과 6명의 팀원은 장애청년드림팀을 통해 넓은 세상을 경험한 후 이무기에서 용이 되었다고 표현했다. 당당하게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능률한 용으로 말이다.



“현실에 대한 불만을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바꿔준 소중한 경험”

장애청년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 14기 ‘BWT’ 팀 리더 이민혁 덴마크로 연수를 떠난 BWT 팀은 ‘내 꿈은 안마사가 아니에요’라는 이름으로 장애인 진로직업교육에

대한 고찰을 연수 테마로 정했다. 시각장애가 있는 이민혁 씨가 1년 동안 안마사로 일하면서 느낀 경험이 반영된 것. 덴마크는 장애인 직업훈련 제도와 직업진로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가 있는 등 관련 제도와 정책을 체계적으로 잘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시각장애인의 채용을 거부하는 등 장애를 대하는 대중의 인식과 태도는 한국보다 낫다고 할 수 없었다. 연수를 갔다 온 후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 점이 큰 수확이었다. 우리나라도 장애인을 위한 시설과 제도가 비교적 잘 마련되고 있고, 장애 인식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음을 느낀 것이다. 세상에 대해 날카롭게 날을 세운 마음이 조금씩 무뎠다. 미래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대학에서 공부를 계속하며 앞으로 장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일하고 싶다는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

PART 3

세상을 향한 당당한 걸음

장애물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뛰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때론 힘이 된다. 사랑의열매에서는 장애인의 역량 강화, 자기 계발, 문화 지원, 사회 진출 등 다양한 분야의 장애인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각기관제공



정신장애인 맞춤형 직종 개발, Clean Up! Life Up!

태화섬솻는집에서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취업의 장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하우스키팅 코디네이터'를 새로운 직종으로 개발했다. 이론과 실습 교육을 진행하며, 수료생이 채용되어 취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전통음악을 알리는 조선의 악사, 관현맹인전통예술단

조선 시대 때 시각장애인 연주자를 궁중 악사로 채용하던 관현맹인을 재현해 창단한 팀이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이다. 사랑의열매에서 지원하며 2011년 창단한 이후 활발한 공연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한국 전통음악의 진수를 알리는 한편, 문화 소외 계층을 찾아가는 문화나눔 공연과 시각장애인 인식 개선 공연 등에도 힘쓰고 있다.

음악을 기반으로 한 발달장애인의 전문 연주자 창직 프로젝트

사회적협동조합 드림위드양상블은 국내 최초의 발달장애 단원들로 이루어진 전문 연주 단체다. 발달장애인은 양상블을 할 수 없다는 우려의 시선을 잠식하고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사랑의열매의 지원을 받아 발달장애 청소년의 음악적 치유와 사회성 향상, 전문 연주자 직업군에 도전해 경제 자립을 이룰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미술적 재능으로 안정적 경제 자립 지원, 틈새에서 Job다

미술적 재능이 있는 여성 정신장애인을 아르 브뤼(Art Brut) 작가로 발굴, 작품 판매 및 아트 상품 제작 판매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 안정적인 경제 자립을 가능하게 한다. 작가 활동 외에도 미술관 도슨트 활동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영역을 넓혔다.

희망을 담은 커피 한잔, 마음모아 카페

MOA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운영 전문교육을 받은 정신장애인이 직접 바리스타가 되어 일한다. 사랑의열매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직업훈련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IT와 타악기의 환상적 만남, 장타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다양한 융·복합 콘텐츠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내 장애인으로 구성된 연주자와 연주팀 중에는 IT와 결합한 경우가 없었다. 이에 국내 첫 IT 결합형 장애인 타악기 앙상블을 창단해 결합형 융·복합 문화 콘텐츠를 만들었다. 앞으로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며, 음악인으로서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가능케 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인천 최초 부부 아너 가입한 이만우·성숙희 부부

“하얗게 칠한 공장 울타리처럼 누군가에게 희망의 이정표가 되고 싶어요”

지난 1월 12일 인천
사랑의열매 최초로 부부가
아너 소사이어티(이하
아너)에 동반 가입한 사례가
나왔다. 이만우·성숙희
유니스트코리아(주)
대표이사 부부는 나란히
132, 133호 회원이 되었다.
부부가 함께 나눔을
실천하며 아너에 동반
가입한 일은 이례적이다.



회갑잔치 대신 아내와 나눔을 실천한 남자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생 함께할 것을 맹세합니까?”는 주례사에 자주 등장하다 못해 이제는 진부한 표현이 되었다. 하지만 그 맹세를 지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일까. 이만우·성숙희 부부에게선 36년 전 많은 하객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맺은 혼인 서약을 지금 까지 충실히 지켜온 것 같은 단단한 힘이 느껴졌다. 아내에 동반 가입하며 나눔을 실천할 때에도 함께하는 돈독한 부부애를 또 한 번 드러냈다. 가입을 먼저 제의한 것은 남편 이만우 대표였다. “남편이 회갑을 맞아 나눔을 실천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을 때 좋은 생각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내 가입을 같이 하자고 해서 놀랐죠.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으니까요. 제 회갑은 내년인데.(웃음) 36년의 시간을 함께한 아내이자 동반자로 존중 받는 느낌이 들어서 남편에게 고마웠죠. (성숙희 씨) 굳이 둘이 아니라 혼자 아내에 가입해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다. 혹은 가장의 권위를 우선시한 사람이었다면 “남편 먼저, 아내는 다음에”라고 외쳤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만우 대표는 좋은 일도 함께 하며 더불어 사는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성숙희 씨가 가입식 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은 이 사람을 만나서 사랑받은 일 같습니다”라고 한 말이 과장된 표현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번에 쾌척한 2억 원은 이만우 대표가 자신의 회갑을 위해 5년 동안 꼬박꼬박 적금을 부어 마련한 것으로 의미가 남다르다.



“처음부터 좋은 일을 하겠다는 거창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만기된 적금을 받고 곰곰 생각해보니 내가 이렇게 돈을 모은 것도 사업 거래처, 이웃 등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기 때문 이터라고요. 지금까지 받은 것을 다 돌려줄 수는 없지만, 일부라도 사회에 돌려줘야 할 때가 되었다고 느꼈어요.” (이만우 대표)

주위에선 어떻게 그리 큰돈을 선뜻 내놓을 수 있는지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이 대표는 그런 말마저도 불편하다고 했다. 입이 떡 벌어지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기부한 것도 아니고, 사회 환원에 큰 뜻을 품은 것도 아니기 때문. 다만 지금은 자신의 경제적 능력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졌고, 열심히 일한 덕분에 이 돈을 사회에 돌려줘도 가정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움 받은 것을 되돌려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것이다.

“처음엔 (거액을 기부하는 게) 남들 눈에 안 좋게 보이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나 주변 지인들이 우릴 보고 나도 나중에 하고 싶다고 말할 때 기부하길 잘했구나 싶었죠.” (성숙희 씨)

“
아버지 인생의
위대한 결과물은
이 순간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이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
같습니다.

— 가입식 날 남독한
막내아들의 편지 중

“
지금까지는 가까운
이웃을 만드는 데
노력을 많이 했다면,
앞으로는 아름답고
행복한 인연을
만드는 데 시간을
할애하려고 합니다.
- 이만우 대표

행복은 나눌 줄 아는 배려심으로부터

아너 가입식 날 성숙희 씨는 남편을 만난 것이 첫 번째 행운이라면, 두 번째는 좋은 이웃을 알고, 4남매의 부모가 된 것이라 밝혔다. 그중에서도 그녀가 벅차오르는 감정을 담아 무대로 부른 이가 있었다. 2남 2녀 중 셋째인 아들 상진 씨였다. 그녀가 “애가 우리 집 대표입니다”라며 참석자에게 소개하자, 장내에는 따뜻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어 성숙희 씨는 장애가 있는 상진 씨를 키우면서 많은 이에게 받은 고마움을 표현했다. “상진을 키우면서 나만 힘든 줄 알던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고민도 많았고, 혼자만 아등바등 애쓰며 아이를 키우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주위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남

편은 물론이고 이웃, 아이들의 학교, 더 넓게는 스쳐가는 모든 분께 도움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상진은 나 혼자 키우는 게 아니라는 걸요.” (성숙희 씨)

부부는 4남매가 어릴 때부터 타인을 배려하는 자세부터 가르쳤고, 수없이 강조했다. 그 덕에 성인이 된 4남매는 지금도 내 욕심을 챙기기보다 다른 사람의 몫을 나눌 줄 아는 배려 깊은 모습을 보인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우리는 4남매이니 항상 주변의 시선을 받는 집이다. 그리고 상진이 있으니 한 번 더 시선을 받는다. 그러니 우리가 더 노력하고 참고 배려해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우리 집에 손님이 오셨는데 제가 바쁘면 상진이 가물 한 잔이라도 떠다 드려요. 손님이 오면 대접해야 한다는 걸 아는 거죠. 고맙게도 4남매 모두 잘 키웠어요.” (성숙희 씨)

가족에게 상진 씨는 결속력을 다져주고, 그들이 웃게 만들어주는 존재였다. 어딜 가더라도 “우리 집 대표 이상진입니다”라고 그를 소개했다. 가족이 먼저 대접해줘야 밖에서도 대접해준다는 생각에서였다.

성숙희 씨는 세차장에서 있었던 일화를 들려주었다. 거기서 일하는 직원분이 자신에게 표정도 좋고, 차도 좋으며 너무 부럽다는 말을 건넸다. 그러자 그녀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거나 악착같이 모으려 하지 않았다고, 대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고, 그렇게 살다 보니 지금처럼 되었다고 대답했다.

“힘든 일에 너무 매달려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더 불행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감사한 순간을 찾으면 좋겠어요.”

(성숙희 씨)



공장을 미술관처럼 근사하게 짓는 이유

사업가라고 하면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셈이 빠르고,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이미지가 떠오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만우 대표는 이웃에게만큼은 이익을 따지는 대신 희망을 먼저 생각한다. 아내 성숙희 씨의 표현을 빌리자면 “1억을 벌면 1억 2,000을 쓰는 사람”이다.

“처음 공장을 지을 때였어요. 남의 손에 맡기지 않고 자재 수급부터 인테리어까지 남편이 거의 다 했어요. 사람들이 미술관 같다고 말할 정도로 근사하게 지었지요. 일반적으로 공장은 공장처럼 지어야 돈을 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시선으로 보고 생각해요.” (성숙희 씨)

공장의 울타리는 하얀색으로 칠했다. “하얀 울타리 공장에서 몇 번째 집” 식으로 길을 찾을 때 기준이 될 수 있는 이정표 역할을 위해서였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장처럼 지었을 때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갔지만, 이만우 대표에게 돈은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모두가 즐겁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이자 남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공간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이다.

“제가 생각하기에 봉사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금전으로 하는 봉사, 두 번째는 노동으로 하는 봉사, 마지막은 희망을 주는 봉사로 저는 세 번째를 항상 강조해요. 다른 사람 소유의 공장이라든가 누군가에게는 저런 공장을 갖고 싶다는 희망을 줄 수 있다면 봉사라고 생각해요.” (이만우 대표)

거액을 쾌척했다고 해서 그들의 일상에 변화는 없다. 가끔 누군가 대단하다는 말을 건넬 때면 잊고 있던 자신의 아너 가입을 떠올릴 뿐이다. ‘사랑의열매를 통해 필요한 곳에 잘 전해졌겠지’라는 생각이 들 때면 돈에 대한 아까움보다 기부하길 잘했다는 만족감이 들었다.



“인천 시민이 굉장히 많은데 그에 비하면 아너 가입이 저조한 것 같아요. 바람이 있다면 앞으로 많은 분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를 보고 누군가는 ‘부부 동반 아너 가입’의 희망을 꿈꾸길 바라고요.” (이만우 대표)

과거에는 회갑을 맞이하면 크게 잔치를 벌였다. 육십갑자를 거쳐 자신이 태어난 해의 간지, 즉 원래 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를 축하해주었다. 이만우 대표도 원래 자리로 되돌아왔다.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 아내와 가족, 그리고 어려운 이웃의 손을 잡았다. 이제는 그들과 발맞춰 걸으며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고자 한다. 희망이 또 다른 희망으로 이어지는 ‘나눔 선두 주자’가 되는 그날까지 말이다. ❀



(주)우아한형제들 김봉진 대표의 71억 기부 스토리

“오늘의 나눔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넌 먹을 때가 가장 예뻐”라는 톡톡 튀는 카피와
범상치 않은 B급 감성으로 유명한 배달의민족.

국내 1위 배달 앱 배달의민족의 창업자 (주)우아한형제들 김봉진 대표가 작년 봄 50억 원을 쾌척한 뒤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배달원을 위해 써달라”며 20억 원을 또 다시 기부했다.

해를 이어 기부를 실천한 김 대표는 “살아생전 기부하여 기쁨과 변화를 느끼고 싶다”는 소망도 밝혔다.

지난해 3월,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50억 원을 기부하며 국내 초고액 기부의 장을 연 '배달의민족' 창업자 (주) 우아한형제들 김봉진 대표가 지난달 18일, 20억 원을 추가 기부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김지만 前 쏘카 대표의 '사랑의열매 제2호 한국형 기부자조연구금'에 기부한 1억 원을 합해 사랑의열매에 총 71억 원을 기부했다. 이는 사랑의열매 역대 개인 기부액 중 최고액이다. 김봉진 대표는 2017년 10월 페이스북을 통해 향후 3년간 사재(私財) 100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재물을 숨겨두는 방법으로 남에게 베풀어주는 것만 한 것이 없다”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문구를 인용하며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전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대한 ‘감사함’이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세상에 대한 감사함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기부 배경을 설명했다. 애초에 그는 재단을 설립하고자 했지만, 재단 운영비만큼 더 많은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부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봉진 대표, 라이더에게 안전을 배달하다

이번에 기부한 20억 원은 사랑의열매가 기획한 '한국형 기부자조연구금'의 제3호 기금으로 운영되며, 기부자인 김 대표의 요청에 따라 음식 배달 중 사고를 당한 배달업 종사자(라이더)들의 의료비와 생계비로 사용할 방침이다. 기금명은 보살피다, 살림이 피다, 삶이 피다는 의미를 담아 '우아한 라이더 살림 기금'으로 명명했다. 사랑의열매는 의료 기관 내 의료 사회복지



1 아너 소사이머티 기부자의 벽 앞에서 환담을 나누는 김봉진 대표와 예종석 회장
2 초고액 기부의 새로운 장을 열며 1811호 아너 소사이머티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분야와의 업무 연계를 통해 대상자 선정부터 지원·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전달식을 진행한 서울 세종대로 사랑의열매회관 명예의 전당은 시종일관 즐겁고 유쾌한 분위기였다. 전달식에는 김봉진 대표와 예종석 회장을 비롯해 우아한형제들 류진 홍보이사와 국내 1호 관점 디자이너이자 우아한형제들 등 여러 회사의 커뮤니케이션 자문 역으로 활동하는 PYH 박용후 대표도 함께 해 김봉진 대표의 선행을 축하해주었다. 기부자 서명을 받기 위해 배민 라이더의 상징인 민트색 헬멧이 등장하자 장내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김 대표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중 하나인 보험조차 들기 어려운 처지에서 음식 배달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라이더분들께 치료비와 생활 안정 자금 지원으로 조금이나 힘이 되고 싶었다”면서 “앞으로 음식 배달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더 커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예종석 회장도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 배달업 종사자분들에게 큰 희망이 됨과 동시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아름다운 모범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실제로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재작년에 발표한 '서울 지역 음식 배달 종사자 노동 실태 조사'에 따르면 배달대행업체 콜을 통해 배달하는 경우 산재보험을 받는 비율은 18.7%에 불과하다. 10명 중 1.8명꼴이다. 우아한형제들 같은 규모가 큰 회사는 보험사와 오랜 시간 협의를 통해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2



소규모 배달 대행 회사에 소속되었거나 단기 아르바이트, 청소년과 신용불량자의 경우 보험 가입은 꿈도 꿀 수 없는 형편이다. 이렇듯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해 정부와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현실적 방안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스타트업인 배달의민족 김봉진 대표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이번 라이더 지원 기금은 전국의 외식업 종사자 모두를 대상으로 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해피 바이러스 퍼뜨리는 나눔의 선순환

기부자조연구금(DAF·Donor Advised Fund)은 현금, 주식 등을 펀드에 맡겨 운용 수익을 기부하는 형식으로 미국 등 기부 선진국에서 활성화된 것이다. 기부자가 기부금 운영과 배분에 대해 조언할 수 있어 재단 설립과 유사한 효과가 있으며, 재단 운용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보다 많은 지원을 펼칠 수 있다. 김봉진 대표가 선택한 한국형 기부자조연구금은 사랑의열매가 론칭한 별도의 기부자조연구금으로, 사랑의열매가 기금을 직접 관리하면서 기부자의 조언에 따라 지원 사업을 펼치는 것으로, 운용 수익과 함께 원금을 모두 소진하는 방식이다. 또 기금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이 기금 기부에 참여할 수도 있다. 1호 기부자조연구금은 지난해 3월 김봉진 대표의 기부금 50억 원으로 조성한 저소득 자녀 장학금 지원 기금인 '우아한 영향력 선순환기금'이다. 사랑의열매는 1호 DAF를 통해 향후 5년간 중등·고등·대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과 멘토링 및 정서

지원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성금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우아한 영향력 선순환기금운영위원회'도 꾸렸다. 이 기금의 취지에 공감한 신병철 중간계캠퍼스 대표가 1억 원을, 김상현 전 네이버 대표와 노소라 부부가 3억 원을 보탤다. 2호는 지난해 12월 김지만 전 쏘카(차량 공유 스타트업) 대표의 기부금 10억 원으로 조성한 제주도 아동·청소년 장학 지원 및 정서 지원 사업 기금 '제쿠먼#맨들어'다. 당시 김지만 대표는 "비슷한 시기에 창업한 김봉진 대표가 50억 원을 기부하는 것을 보고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봉진 대표 역시 '제쿠먼 #맨들어'에 관심을 표하고 여기에 1억 원을 기부(작년 12월)하면서 나눔의 선순환을 보여 주는 좋은 예로 훈훈한 화제가 되었다.

나눔과 상생에서 태동한 별난 경영

배달의민족이 주목받는 건 성장 속도 때문만이 아니다. 사람들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유니크함과 특유의 유머 코드에 경의를 표한다. 이 낯선 문화를 '배민다움', '배민스러움'이라고도 말한다. 이런 별난 생각은 사람을 향한 나눔과 상생에서 시작됐다. 스타트업계에서 배달의민족은 나눔과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으로 명성이 높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료 프로그램인 '배민아카데미'를 열어 업주의 매출이 증가하도록 꿀팁을 제공하고, '어르신 우유 안부 묻기 프로젝트'를 통해 12개 구 1,600가구의 혼자 사는 어르신에게 우유를 매일 배달하고 있다. 인간에 대한 따스한 시선은 사원 복지로도 이어졌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한국형 기부자즈언기금 전달식

2019. 11:00



1 '우아한 라이더 살핌 기금'의 발족을 축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 배민 라이더의 상징인 민트색 헬멧에 김봉진 대표의 메시지를 담았다 3 기부금 전달식에서 인사말을 하는 김봉진 대표 4 10년간 독서에 매진하며 얻은 노하우를 담아 책으로도 펴냈다

3

4



배달의민족은 주 4.5일 근무다. 월요일은 오후 1시에 출근한다. 실제 주어지는 시간은 2~3시간에 불과하지만, 이 작은 시간으로 한 주의 시작을 여유 있고 부드럽게 할 수 있다. 더불어 자녀 행사일 휴가 '학부모 특별 휴가', 임신한 아내가 있는 직원의 검진일 재택근무 '아재 근무', 개인·

배우자·가족 기념일에는 오후 4시 조기 퇴근 '지만가(지금 만나러 갑니다)' 등의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 배달의민족 직원들에게 도서 구매비도 무한 지원한다. 그런데 오프라인 서점에서 정가로 살 경우에만 도서 구매비를 지원한다. "출판 시장이 어려운데 매번 할인받고 사면 제대로 된 책을 출판사에서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해 배달의민족 직원들의 도서 구입비는 1인당 매달 평균 12만 원 정도였고, 모두 정가로 구입했다.

김봉진 대표는 "책은 우리 안에 꿈꿨던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한다"는 카프카의 말처럼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과 상식을 깨고 새로운 관점과 또 다른 시각을 던져주는 도끼가 책이라 믿는다.

"한 인간이 정말 잘 살았다는 것은 돈을 많이 벌거나 명예를 크게 얻은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는 그의 손에는 오늘도 책이 들려 있다. 김 대표는 책을 읽는다고 모두 잘 살 수는 없지만 살면서 해야 하는 크고 작은 결정을 조금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 구성원 모두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갈 때 우리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다. 나눔과 상생 그리고 책, 배달의민족의 급성장 비결이 여기에 있다. 🍀



소액 기부 문화 활성화 입법 공청회 현장을 가다

‘소액 다수 기부 문화 활성화, 왜 필요한가’

기부는 국가가 미처 책임지지 못하는 사회복지 영역을 민간이 담당하기 때문에 소액 다수의 개인 기부 문화를 확산·정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다 많은 사람이 기부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유승희 국회의원이실 주최하고 사랑의열매가 공동 주관한 입법 공청회 현장에서 그 답을 찾아보았다.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눈부신 성장을 거두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돌파하며 선진국의 문턱까지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기부문화만큼은 아직도 선진국 수준에 한참 밀리고 있는 게 현실. 영국의 자선단체 CAF(Charities Aid Foundation)의 ‘세계기부 지수 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참여지수는 34%로 세계 139개국 중 62위, OECD 회원국 35개국 중 21위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소액 다수의 개인기부보다 기업 기부 비율이 높고, 개인 기부도 일회적이고 충동적인 성격을 띤다. 물론 기업이 중심이 되는 고액 기부는 사회의 안전망을 확보하는 데 큰 기여를 한다. 하지만 국민 다수가 중심이 되는 소액 기부는 정부나 기업이 미처 다 책임지지 못하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절대적으로 지탱해준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소액기부자들의 증가가 절실하다.





기부자에게 무엇을 줄까, 고민할 때

우리나라는 현재 1천만 원 이하의 기부자들에게는 15%, 1천만 원 이상의 기부자들에게는 30%의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다. 기부금액에 따라 세제 혜택이 다른 셈인데, 소액 기부자들에게 대한 역할별이란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보험이나 의료비, 교육비와 함께 일괄 적용된 세액공제율 15%는 기부금의 특수한 성격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소액기부자를 혁신적으로 늘려보자며 지난 달 1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사랑의열매, 소비자재단 등은 '소액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열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색했다.

앞서 유승희 의원은 소액기부 활성화를 위해 1천만 원 이하 기부금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30%로 인상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액기부 확대만큼 소액기부 문화의 활성화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부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단일 세액공제율을 적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기부문화 선진화포럼 공동대표 원혜영 의원은 "일부 선진국은 기부금에 대해 100%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을 만큼 기부문화가 공동체 유지에 큰 동력을 인식하고 있다"고 법안의 취지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공청회에서 주요 토론자로 나선 사랑의열매 김효진 자원개발본부장은 모금을 하는 현장에서는 어떻게 기부금을 받을 것인가보다 기부자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해 더 고민한다면서 유승희 의원의 소액기부 세액공제율 인상 발의 법안을 적극 지지했다.

소액기부자에게 보다 많은 세제혜택을

김효진 본부장은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기부는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방법임과 동시에 세대, 계층, 종교, 민족 등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예방적 기능과 개인이 사회에 재산을 환원하는 성격을 가지는 공익적 측면에 그 어느 때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고 강조했다.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기부금액에 따라 세제혜택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역할은 소액기부자의 동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소액이든 고액이든 모든 기부는 소중하고 소액기부를 해본 사람일수록 고액기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제혜택도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에 나선 김영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은 "소액 다수의 기부확대의 긍정성을 고려해 국가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사회를 맡은 녹색소비자연대 최재성 센터장을 비롯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문진영 서강대 교수, 공익솔루션 센터장 이동형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편집인 등이 참석해 소액기부자의 증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1 법안을 발의한 유승희 의원을 비롯 원혜영 의원과 소비자재단 이천주 이사장, 김연순 사랑의열매 사무총장 등 공청회 주요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 3 공청회 주요 모습 4 국회기부문화선진화포럼 공동대표 원혜영 의원 5 김영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6 사랑의열매 김효진 본부장



ON AIR

지금 TV와 라디오에선 사랑이 On Ai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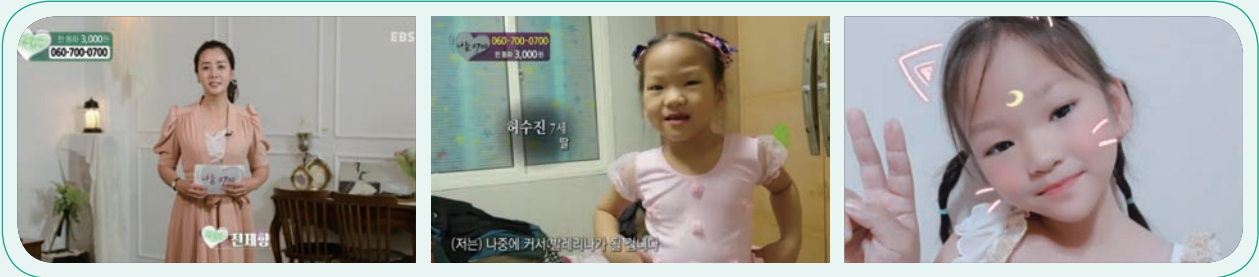
대중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방송을 통한 기부이다. 가슴 아픈 사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을 응원하는 기부에 동참하는 청취자와 시청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TV와 라디오를 통해 나눔을 연결하는 사랑의열매 방송모금을 소개한다.



매주 목요일마다 사연을 소개하는 문천식, 정선희 DJ와 신수임 리포터

95.9 나눔의 Mhz MBC <지금은 라디오시대>

매주 목요일 MBC라디오 '지금은 라디오시대'(이하 지라시)에서는 사랑의열매와 함께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모금 방송을 진행한다. 우리 주변 나눔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을 찾아가 그들의 사연을 청취자에게 들려주고, 후원 계좌를 통해 모금하고 있다. 특히 2018년 8월에 방송된 사례는 많은 청취자의 마음을 울려 큰 화제가 되었다. 응급 구조원이던 C 씨는 2016년 4월 산책길에 뇌경색으로 쓰러져 응급수술을 받은 이후 우측 편마비로 식사, 목욕, 옷 입기 등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하지만 C 씨는 지체장애 3급인 아버지와 전업주부인 어머니가 있었고, 지적장애 2급인 오빠가 벌어오는 110만 원의 수입이 전부였기에 C 씨의 병원비까지 총당할 수 없었다. <지라시>는 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해주어 C 씨가 건강을 되찾도록 도움을 주었다. <지라시>는 1996년 첫 방송을 시작해 지금까지 23년간 약 215억의 성금을 모아 도움을 주었다. 그 공로로 2018년에는 대한민국 나눔 국민대상 시상식에서 단체 부문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EBS에서 방영된 수진이의 두 번째 이야기. '28개월 수진이의 투병일기' 방송 이후 항암 치료를 받고 건강한 웃음을 되찾은 모습을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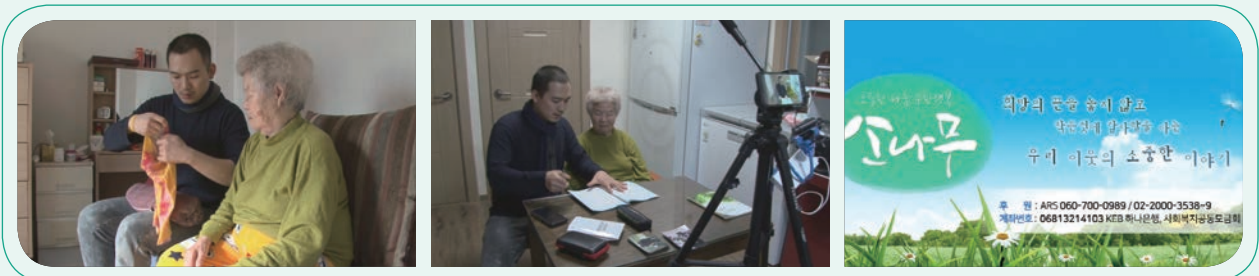
0700 사랑을 전하는 번호 EBS <나눔 0700>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움직이는 번호 'ARS 060-700-0700'을 EBS(한국교육 방송공사)에서도 만날 수 있다. <나눔 0700>은 우리 주변의 장애인, 난치성 환우, 조손 가정, 소년소녀 가장, 다문화 가정 등 힘든 현실에 처한 이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담담하게 보여주며 희망을 이야기한다. 2018년 1월, 고작 28개월 된 수진이가 난소암 4기 진단을 받아 투병하는 모습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수진이의 이야기가 방송을 통해 세상에 전해지면서 십시일반도 움의 손길이 이어졌고, 무사히 항암 치료를 마칠 수 있었다. 아직 남은 치료가 있지만, 항암 치료로 빠졌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면서 건강하게 웃기 시작한 수진이의 환한 얼굴은 많은 이에게 감동을 안겨주었다. <나눔 0700>은 ARS 한 통으로 3,000원을 기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나눔 0700>은 '카카오같이가치'와 연계해 보다 많은 후원자가 쉽게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함께 나누는 행복 MBN <소나무>

MBN에서 매주 금요일 밤 12시 30분에 방영하는 <소나무>는 사랑의열매와 연계해서 가치 있는 나눔을 실천하는 방송이다. 2019년 2월에 방송된 정한 씨의 사연은 지금도 많은 사람의 기억에 생생하다. 어린 시절 대장암으로 어머니를, 간경화로 아버지까지 잃은 정한 씨는 할머니 손에 자랐다. 그러나 정한 씨의 불행은 그게 끝이 아니었다. 정한 씨를 정성으로 키운 할머니는 현재 치매 말기였고 정한 씨마저 악성 뇌종양 3기 진단을 받으면서 상황은 겹잡을 수 없이 악화됐다. 하지만 정한 씨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 아픈 몸으로 세차장에서 일해 받은 돈으로 할머니를 돌보고 있다. 누구보다 희망을 원하는 정한 씨는 유튜브 방송까지 개설해 자신의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방송 이후 정한 씨에게 많은 이의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다. <소나무>는 ARS 060-700-0989로 모은 큰 사랑을 사례자에게 매달 균등하게 전달한다. 온라인 기부 포털 해피빈을 통해 <소나무>에서 방영된 사례자를 후원할 수 있다. 🍀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돌보며 희망을 이야기하고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는 정한씨의 이야기는 MBN <소나무>를 통해 방송됐다.





청양군노인종합복지관 실버미술봉사단·무지개봉사단

“내 나이가 어때서, 봉사하기 딱 좋은 나인데!”

마술 쇼를 선보이며 환호성을 받고, 풍선 아트를 하며
아이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어른들이 있다. 청양군노인종합복지관의
실버미술봉사단원과 무지개봉사단원은 마술과 풍선 아트를 배우며
이전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 봉사 활동을 하며 젊은 청년으로 거듭났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청양군노인종합복지관(관장 강미희)이 삼성 전자와 사랑의열매가 공동 주관하는 2018년 ‘나눔과 꿈’에 선정된 사업을 시행했다. 2회 차를 맞은 나눔과 꿈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사업을 실행할 재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비영리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만든 사회복지 공모 사업이다. 청양군노인종합복지관은 농촌 지역 어르신들의 자기 계발 및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응모해 충남 도내 노인복지관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 공모에 채택된 프로그램은 배움의 기회가 없던 노인들이 전문 자격증(마술, 풍선 아트)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 전문 자원봉사나 직업적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어르신들이 사업의 단순한 참여자가 아닌 주도자로서 직접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출발선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블러주면 달려가는 어르신 공연단

‘실버마술봉사단’은 비록 아마추어 공연단이지만 정성만큼은 프로 못지않다. 최대한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공연 대상에 따라 레퍼토리를 달리하고, 마술스킬과 공연 진행도 수시로 연마하는 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인다. 어린이의 경우 풍선이나 장미 등 다양한 색채와 소품 마술 인기가 좋고, 경로당에서는 물이나 컵 등이 사라지는 마술이 인기가 좋은 편이다. 실크 손수건에서 갑자기 장미꽃이 나오고, 자동차 바퀴 색깔이 변하는 등 그동안 갈고닦은 마술 솜씨를 뽐내는 실버마술봉사단원의 얼굴도 자부심과 기쁨으로 환하게 피어오른다. 실버마술봉사단에서 활동하는 정선준(70)



‘어르신 예술제’에서 마술 공연을 선보이는 실버마술봉사단원들

씨는 마술의 매력으로 즐거움을 쏙았다.

“마술 봉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마술이 보는 사람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무대에서 마술을 펼쳐 보일 때 보는 이는 물론, 공연하는 이도 즐겁다는 것이다. 그래서 실수를 연발하더라도 마술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실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마법 같은 손놀림으로 기쁨을 전하는 재주꾼들은 풍선 아트를 선보이는 ‘무지개봉사단’에도 많다. 이들은 호물호물하던 풍선에 바람을 불어 넣어 귀여운 푸들을 만들어낸다. 놀라움으로 눈이 휘둥그레진 아이의 품에 푸들을 안겨주면 아이들이 좋아서 폴짝폴짝 뛰다. 풍선 아트는 풍선을 활용해 다양한 작품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강아지, 곰, 달팽이, 꽃, 모자는 물론 자동차와 비행기까지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 풍선 아트는 각종 행사와 분위기에 맞게 다양한 색상, 장식, 디자인을 첨가해 행사 효과를 극대화하는 일등 공신이다. 풍선 아트와 마술 수업 모두 두 손과 좌·우뇌를 고루 사용해 창의력 향상과 두뇌 발달,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 그뿐 아니라 이렇게 배운 기술로 행사 참여나 봉사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어 다양한 사회 활동까지 가능하다. 마술 수업과 풍선 아트 1기 졸업생은 ‘청양 고추 구기자 축제’ 때 복지관 부스에서 풍선 나눠주기와 즉석 마술 공연까지 선보여 대단한 인기를 끌었다.

윤정숙(69) 단원은 “가족도 아니고 물질적 도움을 준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고맙다고 인사하며 박수를 칠 때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실버마술봉사단이 유치원에서 그림책 마술을 선보이고 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 동네 아이들

농촌 지역 저학력 노인의 전문 자격 취득을 목표로 교육한 이번 사업에는 총 48명의 어르신(마술·풍선아트)을 취득했다. 자격증 취득 후에는 자원봉사 활동 연계를 통해 단순히 일회성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고 사업을 확장해나갔다. 새로 습득한 재능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며 보람되고 활력 넘치는 노년을 즐기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사업의 주 내용이 ‘마술과 풍선아트’로 이루어지다 보니 봉사 대상으로 유아와 어린이층이 많은 것도 특징이다. 보통 농촌 지역에서는 젊은 사람이 많이 떠나고 자녀들 또한 타지로 나가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함께 할 기회가 줄어들면서 점차 세대 간 교류와 공감대가 사라져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이 늘어나고, 봉사와 후원을 통해 긍정적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세대 공감 효과도 이끌어냈다. 멀리 있는 손주들을 보는 것 같으며 봉사 시간을 기다리는 어른도 있을 정도다.

“마술 공연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을 보면 없던 힘도 난다니까!”

“풍선 갖고 뭐라도 만들 줄 아니까 애들이 따르는 거야. 고사리손으로 ‘풍선 주세요!’ 하고 다가오는 애들이 얼마나 예쁜지. 진짜 뭐든지 다 만들어주고 싶어.”

청양군노인종합복지관의 봉사단원은 앞으로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 봉사하며 보람 있는 노년을 살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들은 지역 축제 기간 동안 150여 명(3일간 매일 2회씩 25명의 축제 방문객들)의 관객에게 마술 공연을 선보였고, 축제장 방문객 600여 명(첫날 지역 어린이집 단체 방문 포함)에게도 풍선을 선물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특별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시니

어 마술단 ‘산타마술사’라는 이름으로도 활동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12월 한 달간 산타 분장을 하고 군내 어린이집과 노인 요양 시설 아홉 곳을 방문해 어르신들과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한 것이다. 봉사단원은 “공연을 보고 즐거워하는 관객들에게서 큰 힘을 얻는다”며 “비록 전문 마술사처럼 화려한 마술을 보여주지는 못하겠지만 열정만큼은 그들 못지않다”고 말했다. 실버마술봉사단과 무지개봉사단의 공연 요청은 담당 사회복지사와의 전화 상담을 통해 진행한다.

평생 교육으로 평생 즐겁게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 우리는 옛날 사람이라 애들이랑 어떻게 놀아줄지 몰랐지. 손주들이 와도 시간 좀 지나면 식은땀이 나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새로 기술(마술)을 배우니까 금방 친해져. 애들이 할아버지 최고래!”

나눔과 꿈 사업이 끝나고도 봉사단은 매주 교육받던 시간에 모여 연습과 간담회를



청양 고추 구기자 축제에서 풍선을 나눠주는 행사도 벌였다.

하고 있다. 방학 시즌이 끝나는 3월부터는 봉사활동도 다닌다.

어르신들의 열정에 청양도서관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실버마술봉사단의 공연을 위해 일부 수업을 지원한 것이다. 무대에 오르기 위한 매너와 새롭고 다양한 기술 등을 연마할 수 있는 수업을 받도록 했다. 이는 매끄러운 마술 공연에 도움이 되었으며, 2019년에는 청양도서관 지원으로 마술반 어르신들을 위한 ‘마술교실’과 풍선 아트반 어르신들을 위한 ‘동화구연교실’을 정규 프로그램으로 개설할 예정이다. 봉사단의 배움에 대한 열정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지역사회에서도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를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어르신들의 활동 영역을 넓히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노년은 금전과 젊음 등 여러 측면에서 상실의 시기일 수 있다. 하지만 여가 활동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하지 못한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좋은 도전의 시기가 될 수 있다. 청양군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들 처럼 말이다. 봉사를 ‘노년의 축복’이라 말하는 이들이 있어 우리 사회의 내일은 밝다. ❀

풍선 아트로 아이들에게 해적 길을 만들어주고 있는 무지개봉사단원들



INTERVIEW

“풍선 아트 배우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얻었어요”

청양군노인종합복지관 무지개봉사단 윤정숙(69) 단원



풍선 아트를 함께 배우는 분이 모두 70세가 넘으셨는데 열의가 대단해요. 덕분에 좋은 기운을 많이 받고 있죠. 이제 풍선만 있으면 누구와도 쉽게 친해질 수 있어 인간관계에도 자신감이 생겼답니다. 사실 할머니들이 아이들처럼 놀아 주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럴 때 풍선으로 칼 만들어 칼싸움도 하고, 푸들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함께 놀기도 하지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과 금방 친해져요. 어린이집에 가면 제 인기가 연예인 못지않아요! 저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풍선 아트는 스피드가 생명이에요.(웃음) 빨리 만들어줘서 아이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거든요. 저도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게 참 기분 좋더라고요.

“마술 쇼를 보고 관객이 웃으면 저도 행복해요”

청양군노인종합복지관 실버마술봉사단 김희수(77) 단원



이전에는 행사에 가도 구경꾼이었는데, 마술을 배우고 나서는 무대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마법같이 고마운 일이지요. 마술은 어떻게 보면 속임수잖아요. 속이는 것을 알고도 모두 기꺼이 속아주는 즐거운 놀이이기도 하고요. 상대방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게 마술의 진짜 힘인 것 같습니다. 신기한 건 다른 사람이 웃는 모습을 보면 저도 덩달아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지난 명절에 그동안 갈고닦은 마술을 보여주니 손주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자식들도 좋은 거 배우셨다면서 용돈도 두둑하게 주고.(웃음) 이웃 아줌마들한테도 보여주면 다들 즐거워합니다. 좀 더 발전된 마술을 선보이려면 다양한 도구를 많이 비치해야 하는데, 도구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지원 사업이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되어 모두가 행복한 공연을 만들어갈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희망 에너지 충전

S-OIL에서 내일의 희망을 가득 채워요

에너지 화학 분야를 선도하는 S-OIL의 핵심 가치 중 하나는 ‘나눔(Sharing)’이다. S-OIL은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나눔 활동을 하기 위해 효과성·적시성·수혜자 중심이라는 3대 원칙에 의거해 우리 사회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영웅·환경·지역사회·소외 이웃’을 살뜰히 보살피고 있다. 선택과 집중의 집약체로 불리는 S-OIL의 나눔 프로그램을 살펴봤다.

S-OIL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평가·조사인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정유 산업 부문에서 1위에 올랐다. 기존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통해 정유·석유화학·유통 분야가 최적의 조화를 이룬 에너지 화학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다. 경제성장, 환경보호, 사회 공헌 등에서 기업 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

을 충실히 수행할 뿐 아니라 나눔 경영의 일환으로 4개 분야(영웅·환경·지역사회·소외 이웃 지킴이)에서 140여 개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는 것도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S-OIL과 사랑의열매는 오랜 파트너십을 갖고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비추는 희망 에너지 나눔을 함께 하고 있다.

적시적기, 맞춤형 핀셋 지원

보육원·장애 청소년의 키다리 아저씨

만 18세에 보육원을 떠나야 하는 보육원 퇴소 청소년이 사회 이사로 떠오른 적이 있다. 이들은 500여만 원의 자립정착금을 들고 생존 경쟁에 내몰리게 된다. S-OIL은 2016년부터 보육원 청소년의 안정적인 학업과 자립을 돕기 위해 사랑의열매를 통해 한국아동복지협회에 'S-OIL 드림(Dream)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다. 보육원 출신 전문 대학생 중 화학공학, 기계, 전기전자 등 이공계 전공 학생 80여 명을 선발해 매년 250만 원의 장학금을 졸업할 때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 75명에게도 중장비와 컴퓨터, 미용, 제과·제빵 등 전문 기술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술 교육비 200만 원을 각각 전달한다. S-OIL 드림 장학금은 일시적 기부가 아니라 학생들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하고, 독자적인 생활 능력을 갖추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수혜자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책임지는 사회 공헌 활동이다. 지난해에도 고객과 함께 모금한 'S-OIL 보너스카드 포인트' 기부금 4,300만 원을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기부금은 S-OIL 고객 8,358명이 기부한 주유 포인트 2,150만 원에 S-OIL이 동일 금액의 성금을 출연해 마련한 것이다. 보너스카드 포인트 기부금 역시 보육 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소년을 위해 쓰고 있다.

2010년부터는 사랑의열매 기부 프로그램 제안으로 경기도 재활공학 서비스연구지원센터와 손잡고 학업 기회에서 소외된 장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저소득 가정 장애 청소년 학습용 맞춤 보조 기구 지원

1 2010년부터 저소득층 장애 청소년에게 특수 맞춤 보조 기구를 지원하고 있다.

2 사랑의열매에 20억 원의 이웃사랑 성금을 기부한 김디 CEO



사업'도 펼치고 있다. 전국의 보조공학서비스 기관으로부터 지원이 필요한 장애 학생을 추천받고, 재활공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현장 평가를 실시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학생에게는 개개인의 장애 유형을 고려해 전동 높낮이 조절 책상, 휴대용 전자 독서 확대기, 조이스틱 특수 마우스, 문자 입력식 음성 재생기 등 맞춤형 기구를 제공한다. 이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장애 학생의 생활 개선 효과와 학력 향상, 사회 참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된다.

소외 이웃의 자생력 높이는 선순환 지원

CASE 1 - 장애를 잊게 만든 감동의 마라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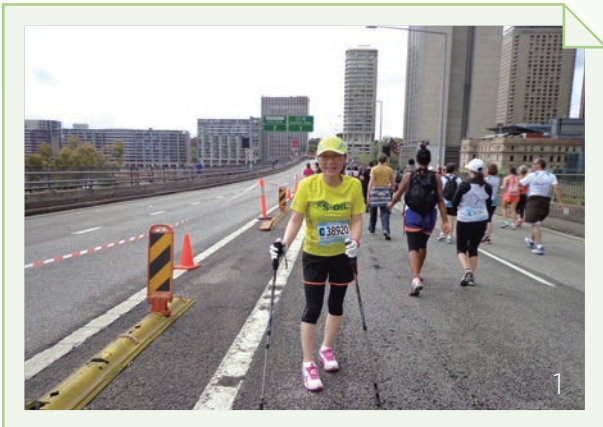
'감동의 마라톤'은 S-OIL의 대표적 사회 공헌 사업으로 장애인 선수단이 매년 해외 유명 마라톤 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가 장애인 선수단 단장으로 함께해 무게를 더한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296명의 장애인 선수가 참가했다. 대회에는 매년 감동의 레이스가 펼쳐지는데 그중에도 패러글라이딩 전 국가대표 김효장(53) 씨의 사연은 특별했다. 2005년 5월 패러글라이딩 추락 사고로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은 김 씨는 걸을 수 없다는 진단을 받고 긴 악몽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왔다고 고백한다. 그런 그녀를 다시 걷고 싶게 만든 것이 감동의 마라톤이었다. 마라톤에 참가하겠다는 결심을 한 뒤로 김 씨는 방 안의 모든 벽에 파이프를 설치하고 극심한 고통을 참아가며 매일 몸을 움직이는 연습을 했다. 그렇게 9개월 만에 스스로 벽을 잡고 다시 일어나는 기적을 연출해냈다.

"장애인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싶었고, 1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한을 푸는 마음으로 걷고 또 걸었어요."

오로지 뒤통치로 걸어야 하는 그녀는 진통제와 소염제로 통증을 견뎌내며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2014 블랙모어스 국제마라톤대회'의 9km 코스에서 결국 2시간 50분의 완주 기록을 세웠다.

CASE 2 - 장애와 편견 딛고 만든 환상의 하모니

국내 최초 발달장애인 단원으로 구성된 '하트하트 오케스트라'는 S-OIL이 지원하는 대표적 문화 복지사업이다. 이들은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합니다'라는 모토 아래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2006년에 창단해 11~30세 단원 30여 명이 활동 중이다. 보통 발달장애인의 음악



교육은 치료나 재활을 주목적으로 하지만, 하트하트 오케스트라의 단원은 큰 무대에서도 손색없을 정도의 수준 높은 앙상블을 선보인다. 창단 당시 “장애인이 무슨 악기를 연주하느냐”는 반응이었고, “수준이 떨어져서 안 된다”며 대관에 난색을 표한 공연장도 있었다. 단원들은 그렇게 사회적 편견과 장애를 딛고 일어섰다. 이들은 소음을 화음으로 바꾸기 위해 곡마다 1,000번 이상의 피나는 노력을 했다. 본인의 맘과 부모님의 헌신적인 희생으로 만들어낸 아름다운 하모니는 그 자체로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 자폐성 장애 2급인 플루트 연주자 김동균 단원의 이야기도 한 편의 드라마다. 단 2초도 사람과 눈을 맞추지 못하고 조기교육과 특수교육에도 변하지 않던 김동균 단원을 바꾼 것은 반짝이는 플루트였다. 눈도 마주치지 못할 정도로 소통하지 못하다가 플루트를 연주하며 그의 세상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음악에 대한 열정을 가지면서 열네 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입학하는 꿈을 꾸었다. 김동균 단원은 무서운 집념으로 하루 6시간이 넘는 연습을 견뎌냈고, 결국

1 하반기 마비를 이겨내고 강동의 마라톤에 참가한 김효장(지체장애 2급) 씨
 2 플루트로 세상과 소통하는 김동균(자폐성 장애 2급) 단원 3 '2018 올해의 시민영웅' 시상식에서 류열 사장(왼쪽)이 시민영웅들에게 표창장과 상금을 전달하고 있다.
 4 파이팅을 외치는 제9기 S-OIL 대학생 천연기념물지킴이단 단원들



‘한국예술종합학교 발달장애학생 1호’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었다. 그리고 올해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대학원)까지 졸업했다. 비장애 학생과 경쟁을 통해 얻어낸 값진 쾌거다. 지난해에는 유니세프(UNICEF) 주최 ‘세계 소녀들을 위한 여성 지도자 모임’에 초대받아 프랑수아 조세프 고세크의 ‘탐버린’을 연주해 청중에게 뜨거운 앙코르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모든 연주자가 꿈꾸는 무대인 뉴욕 카네기 홀에서도 초청을 받아 오케스트라 공연을 펼쳤다. 김동균 단원은 오늘도 플루트를 불며 세상과 소통할 것이고, 사람들은 열렬한 박수로 그를 응원할 것이다. 그의 삶과 연주가 열정의 증표이기 때문이다.

소방관·해양경찰·의인 지원 119 영웅은 S-OIL이 지킨다

“시민 구조는 119! 119 구조는 S-OIL!” 이 말은 사실이다. S-OIL은 2006년부터 ‘소방영웅지킴이’ 프로그램 운영하며 소방대원의 지킴이로 나섰다. 화재 현장 최전선에서 분투하는 소방관들의 사기를 높이고, 경제적 안정을 도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목적이다. 이를 위해 매년 최고 영웅소방관 1명, 영웅소방관 7명을 선발·시상하는데, 2018년에는 대구 중부소방서 이비호(44) 소방위가 대한민국의 최고 영웅소방관의 영예를 안았다. 이 소방위는 지난해 2월 대구시 남구 소재 여관 화재에서 어깨와 손에 2도 화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10여 명의 투숙객을 안전하게 유도해 대피시킨 뒤 건물 내로 진입해 마지막까지 인명 구조 활동을 벌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고 영웅소방관과 영웅소방관에게는 소방청장 표창과 함께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S-OIL은 구조 활동 중에 다친 공상 소방관의 치료비 지원은 물론, 순직 소방관에 대한 예우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해 민간인 보트 구조 활동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경기 김포소방서故 오동진 소방장(37)과故 심문규 소방교(37) 유족에게 각각



3,000만 원의 위로금을 전달했다. 2017년도에도 강릉 강문동 목조 정자인 석난정 화재 진압 중 갑작스러운 건물 붕괴로 순직한 강릉소방서 경포센터 소속 하영욱 소방위(59)와 하 이호현 소방사(27) 유족에게도 위로금을 전달했다. 이처럼 순직·부상 소방관 가정에 위로금과 함께 순직 소방관 유자녀 학자금도 지원한다.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수혜 학생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진학해 학업을 마칠 때까지 이어져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고 있다. 2008년부터는 시민 정신을 발휘해 위험한 상황에서 이웃을 구한 일반 시민을 격려·지원하기 위해 시민영웅 시상식도 진행하고 있다. '2018 올해의 시민영웅 시상식'에는 16명의 시민영웅이 선정되었다. 시민영웅 중에는 할머니가 실수로 놓친 유모차를 본인의 택배 차량으로 막아 세워 아이의 생명을 구한 택배 기사 이재황(34)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씨의 선행은 훈훈한 미담 동영상으로도 크게 화제를 모았다.

멸종 위기 천연기념물 보호 지원 S-OIL은 생태계 지키는 환경파수꾼

환경 보전을 기업의 중요한 책임으로 여기는 S-OIL은 장기간 후원이 필요한 멸종 위기 천연기념물 보호 활동에 동참하기 위해 2008년부터 문화재청과 '1 문화재 1지킴이'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수달, 두루

미, 어름치, 장수하늘소를 보호종으로 선정해 환경지킴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매년 천연기념물 제259호 '어름치' 치어(稚魚) 5,000마리를 금강 상류에 방류하고, 천연기념물 202호인 두루미를 위해 철원 지역에서 서식지 보존, 모이 주기, 치료 약품 지원 등의 활동도 펼쳤다.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한국수달보호협회와 한국조류보호협회, 한국두루미보호협회, 한국민물고기보존협회, 천연기념물곤충연구소 등에 천연기념물 보호 기금도 전달한다. 매년 임직원 가족이 참여하는 서식지 정화, 먹이 주기, 치어 방류 등 봉사 활동과 천연기념물의 문화·생태적 가치를 이해하는 교육 활동도 함께 하고 있다. 또 차세대 환경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국내 유일의 대학생 천연기념물지킴이단도 운영 중이다. 지킴이단은 환경·생물 관련 학과 학생이거나 환경에 관심 있는 대학생으로 구성해 천연기념물 보호 활동은 물론, 개체 수 증대를 위한 탐사 연구 활동도 수행한다. 2006년부터 사회 공헌 활동을 시작한 S-OIL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대상에게 손을 내밀어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선도적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진정성을 가지고 10년 이상 장기 후원을 이어오는 프로그램이 많다는 점도 눈에 띈다. S-OIL CSR/운영지원팀 신영철 사회복지사는 "파트너 단체의 협조와 노력이 없었다면 회사 CSR 프로그램들이 10여 년 동안 지속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파트너 담당 사회복지사들에게 공을 돌렸다. 우리는 S-OIL의 나눔에서 내일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 S-OIL이 뿌린 희망 에너지로 우리 사회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밝을 것이다. 🍀

서울 1호 부부 나눔리더 은재영·이수진 부부

우리 이제 막 '부부 나눔리더' 됐어요

지난 3월 15일 서울에 부부 나눔리더 1호가 탄생했다.
주인공은 아직 '부부'라는 호칭이 익숙지 않은 결혼 2개월 차
뜻뜻한 신혼부부 은재영·이수진 씨다. 결혼 후 첫 나눔을 실천한
두 사람을 나눔리더 가입식에서 만났다.



서울에서의 첫번째 부부 나눔리더

결혼은 일생에서 아주 중요한 대소사 중 하나다. 준비 과정부터 결혼식을 올렸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다. 혼자가 아닌 둘이 함께하는 일상에 적응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날이 이어지기 때문. 한 템포 쉴 수 있는 여유가 생기자 은재영·이수진 부부는 결혼 전부터 계획한 기부를 실천했다. 처음엔 부부가 같이 가입해도 되는지 몰라서 두 사람이 각각 나눔리더에 가입하려고 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남편 은재영 씨가 경기 1호 부부 나눔리더인 백군기·손숙자 용인시장 부부의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남편이 경기 1호분들의 기사를 보여주며 우리도 함께 가입하자고 제안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우리가 부부 나눔리더 타이틀을 달 만한 자격이 될까’ 걱정했어요. 그분들은 결혼 생활을 한 지 오래되었는데 저희는 아직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부담도 되었거든요.” (이수진 씨)

신혼부부의 기부 활성화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어 두 사람은 부담과 걱정은 잠시 접어두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서울 1호 부부 나눔리더가 되는 영광을 안았다. 은재영 씨는 “첫 번째는 뭐든 다 좋지 않나요”라는 농담을 건네며 말문을 열었다.

“나눔리더가 생긴 지 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000만 명이 사는 서울에서 이 제야부부 나눔리더 1호가 나왔다는 게 놀라웠죠. 사람들이 기부에 인색하고 무관심하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한편으론 나눔리더를 모르는 사람도 많을 테니 좀 더 알렸으면 하는 아쉬움도 컸고요.” (은재영 씨)



큰 사랑을 베푸는 간소한 결혼식

은재영·이수진 부부는 결혼식 비용을 아껴 기탁금 200만 원을 마련했다. 결혼식을 준비하다 보면 허례허식인 걸 알면서도 보는 눈을 의식해 남몰래 하는 건 다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두 사람은 결혼 전부터 그런 비용을 줄이자는데 생각이 일치했다. 예비부부가 공동으로 찍는 스튜디오 웨딩 촬영도 하지 않았다. 결혼식도 생각하고 싶었지만 양가 어른들을 배려해 식을 진행하되 형식을 간소화했다. 1시간에 불과한 결혼식에 너무 많은 돈을 쓰는 게 낭비처럼 보였다.

“결혼과 아이를 포기하는 ‘N포 세대’라는 신조어까지 있는 요즘 같은

시대에 저희가 결혼할 수 있었던 건 온전히 개인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알게 모르게 사회에서 도움을 받았기에 지금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당사자들에게만 좋은 결혼식을 하는 것보다는 비용을 아껴 주위의 힘든 분들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선사하고 싶었어요.” (은재영 씨)

결혼 전 부부는 청첩장에 결혼식 비용을 기부하겠다는 문구를 적어 놓았다. 결혼식을 간소하게 진행함을 미리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 문구를 보고 기부하는 것을 특이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많았다. 혹은 알고 보니 집이 부자냐는 식의 농담 섞인 말도 꽤 들었다.

“저희도 평범한 직장인이예요.(웃음) 저희가 기부한 돈이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고요.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목돈이 오가니까 씹씹이가 커지는 것 같아요. 생각을 조금만 다르게 하면 줄일 수 있는 비용이

보여요.” (이수진 씨)

나눔리더에 가입한 이유를 묻자 은재영 씨의 첫 마디는 “저희 둘의 가치관이 맞았어요”였다. 연애 시절부터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나누면서 공통점을 발견했다. 두 사람 모두 청소년 교육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 이수진 씨는 대학생 때부터 청소년 멘토링 활동을 오랫동안 이어왔고, 은재영 씨는 대학 4년 동안 MBC 1318사랑의열매 캠프에 참가하며 청소년 봉사 활동에 힘썼다. 훗날 은퇴한 이후엔 청소년들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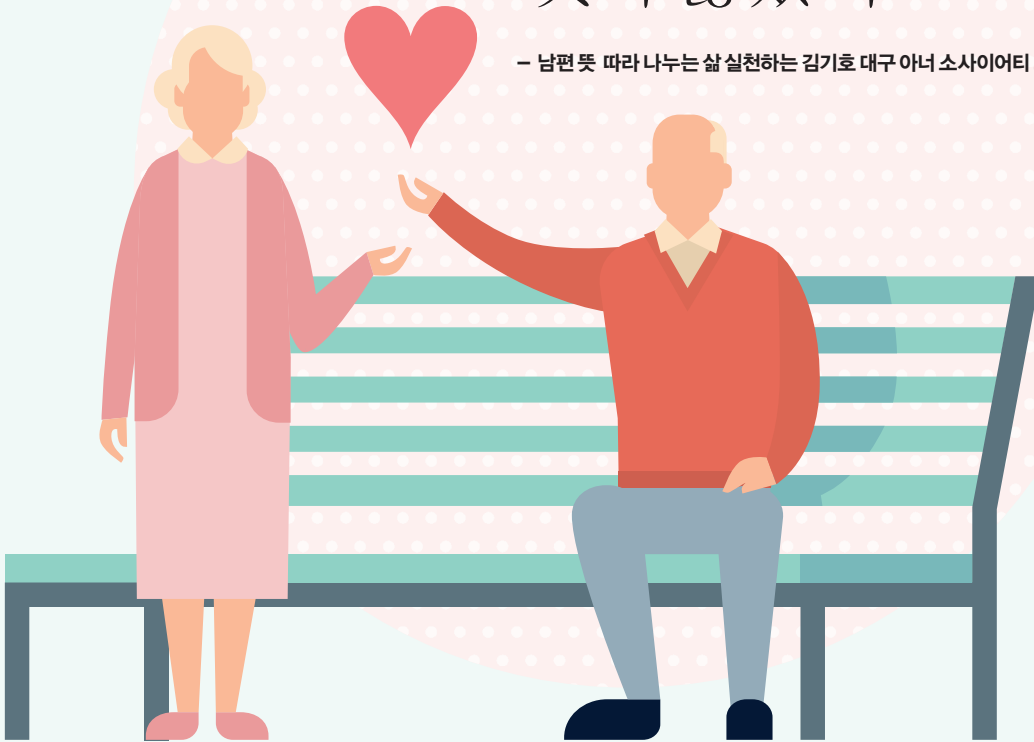
육에 힘쓰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낼 정도로 부부는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어요. 계층 간 이동 사다리는 결국 교육으로 가능하거든요. 타고난 능력이 탁월해도 교육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제 기량을 발휘하기 힘들어요. 그렇게 부모의 소득으로 인해 아이가 받을 수 있는 교육 수준이 다르고, 이게 지속되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더 심해질 거고요.” (은재영 씨)

따라서 어릴 때부터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부는 닳은다던데, 두 사람은 신혼부부임에도 닳은 모습이 참 많았다. 특히 나눌 줄 아는 넉넉한 마음씨가 꼭 닳았다. 그들의 결혼식이 간소했는지 몰라도 덕분에 어려운 이웃에게는 큰 사랑이 돌아갔다. 나눔 활동으로 의미 있게 결혼 생활을 시작한 은재영·이수진 부부의 앞날에 모든 이의 축복이 함께하길! 🍀

“여보, 당신과의 약속 잊지 않았어요”

- 남편뜻 따라 나누는 삶 실천하는 김기호 대구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남편은 참 검소한 사람이었다. 곳은 날씨에 짐이라도 있으면 택시를 타라고 해도 기어코 버스를 탔지, 자신을 위해 택시 한 번 타지 않았다. 무려 10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나 고생도 많이 했다. 하지만 남편은 평생 자신의 책임을 미루거나 불평하는 법이 없었다. 언제나 세상 독불장군은 없다며 더불어 살자고 했다. 그러면서 늘 “콩 한 쪽도 반쪽씩 나누어 먹자”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다. 10남매의 장남인 남편과 달리 나는 무남독녀 외동딸로 태어났다. 옛날에는 동네마다 밥을 구걸하러 다니는 걸인이 참 많았다. 우리 어머니는 집에 걸인이 오면 한 번도 그냥 내치시는 법이 없었다.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있는 밥과 반찬을 꼭 챙겨주시곤 했다.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나는 으레 그렇게 나누며 사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였을까, 늘 콩 한 쪽도 나누어 먹자는 말을 자주 하던 10남매의 장남인 남편이 낯설지 않고 당연했으며 정다웠다.

나눔이라는 선물을 남겨준 남편

7년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영원히 함께할 것만 같았던 남편의 죽음은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아픔이고 슬픔이었다. 그때 내게는 남편과 알뜰하게 살면

서 함께 오랫동안 저금해온 노후 자금이 있었다. 그 돈으로 같이 여행도 하면서 여생을 보내자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 돈을 함께 쓸 남편은 떠나고 저금만 덩그러니 남은 셈이 되었다. 나는 그 돈을 도저히 혼자 쓸 수 없었다. 그렇게 쓸 돈도 아니었다. 문득 늘 더불어 살자고, 콩 한 쪽도 나누어 먹자던 남편의 말이 떠올랐다. 사실 나는 사랑의열매도 아니 소사이어티라는 용어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저 아는 대로 저금통장을 들고 구청에 찾아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다. 그때 구청장님이 귀한 곳에 쓸 수 있도록 돕겠다며 소개한 곳이 바로 사랑의열매였고, 나는 기부를 통해 아너 소사이어티 13호 회원이 되었다. 내가 살고 있는 대구 지역에서 첫 번째 여성 아너 회원이 되는 영광도 누렸다. 가족들과 형제들과 이웃들과 크고 작은 것을 나누고 도우며 살았지만, 공식적으로는 첫 번째 나눔 활동이었다.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 속에 잠겨 있던 나는 기부를 통해 할가분한 마음을 선물 받았다. 기부를 하고 나니 몸과 마음이 날아갈 것처럼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다. 그 순간, 문득 이마저도 날 위한 남편의 선물인 것 같아 마음이 뭉클했다.

나눔 응원하는 아들·며느리 가장 고마워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된 이후 나는 기부를 통해 남편 이름을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에 올리기도 했고, 전 재산을 유산 기부하기로 했다.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훌륭하다, 대단하다며 인사들을 건네지만, 이 나눔이란 것은 신기하게도 시작하고 나니 더 주지 못해, 더 나누지 못해 애가 탄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가진 게 많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감출 수가 없다. 없는 게 한일 뿐,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주고만 싶다. 그렇게 계속 주고 또 주고 비우고 또 비우면 희한하게도 기쁨과 행복으로 내가 계속 가득가득 채워짐을 느낀다. 그래서일까, 이 기쁨과 행복을 주변 사람들도 느꼈으면 하는 욕심이 생겨 가족과 친지, 가까운 지인들에게 나눔 활동을 권유해 아너 회원에 가입시키기도 했다. 그렇게 동참을 해주니 나의 기쁨과 행복은 배가되었다. 나도 그랬지만 나눔은 시작이 어렵다. 거창하게 생각하면 못 한다. 단돈 1,000원이라도 작은 것부터 일단 시작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이 지면을 통해 특별히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바로 아들과 며느리이다. 사실 기부라는 것은 가족의 동의와 응원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아이들은 언제나 “어머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라며 든든하게 응원해주었다. 특히 유산 기부를 결정 했을 때 며느리가 내게 “평생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봉사를 해오셨는데, 가치있는 결정 너무 잘하셨어요, 어머니”라며 인사를 건네는데 절로 감격의 눈물이 나왔다. 그 누구의 칭찬보다 고마운 말이었다. 어쩌면 조금 늦은 나이에 시작한 나의 나눔은 이제 마지막까지 나를 가장 기쁘게 해주는 소중한 재산이 되었다. 작은 재산을 내주고 얻은 큰 재산, 감사하고 감사하다. 고맙고 고맙다. ❀



아너 가입에 이어 유산 기부까지 약속한 김기호 씨. 최근에는 나눔리더에도 가입했으며 가족의 마음을 모아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가정에도 동참하고 있다. 어머니의 뜻에 가까이 함께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

기부자와 비영리단체가 달라진다?

주목해야 할 나눔 전망 6

최근 몇 년간 나눔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그에 따라 비영리 분야에서 트렌드를 민감하게 읽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올해는 어떤 나눔 이슈를 주목해야 할까? 모금 현장, 기업 사회공헌, 언론, 학계 등 총 80명의 전문가에게 2019년 나눔 전망에 대해 물었다.

1 익숙한 모금 방식과 새로운 기부 방식 공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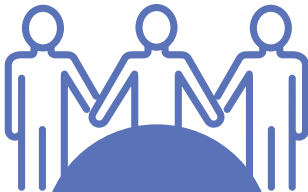
“문화 예술 같은 경우는 거의 크라우드 펀딩에 포커싱되어 있어요.”

매우 동의한다 + 동의한다
61.3%

동의하지 않는다
12.5%

전문가들은 새로운 기부 방식이 등장함으로써 전통적 모금 방식의 영역이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매우 동의한다’ 20%, ‘동의한다’ 41.3%라고 답하며 온라인 모금, 크라우드 펀딩, 공익 상품, 1인 미디어를 통한 기부 등 새로운 방식의 기부가 약진할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동의하지 않는다’ 12.5%와 ‘그저 그렇다’ 26.3%라고 답한 비율도 꽤 높다. 여전히 전통 방식이 익숙한 기부자도 많기 때문. 따라서 한동안 전통 방식과 새로운 방식의 기부가 혼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 자선보다는 사회적 기여에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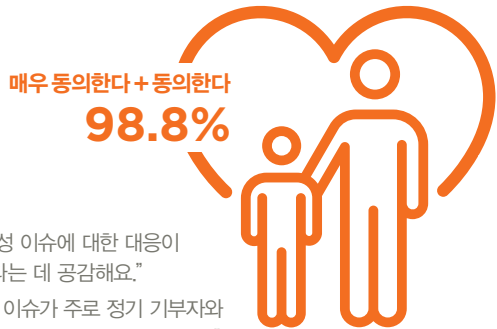
“재작년부터 기부함으로써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알고 싶어 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매우 동의한다 + 동의한다
80.1%

동의하지 않는다
3.8%

전문가 대다수는 자선적 기부에서 사회적 기여로 변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았다. 비영리 분야에서도 자선적 측면만 강조하는 것에서 탈피해 기부 영역을 점차 다양화하고 있으며, 사업 성과 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3 사회적 투명성 강화 요구



매우 동의한다 + 동의한다
98.8%

“투명성 이슈에 대한 대응이 약했다는 데 공감해요.”

“불신 이슈가 주로 정기 기부자와 고액 기부자에게 영향을 미쳐요.”

기부포비아 관련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비영리 분야의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럴 때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유아무야 무마되기 일쑤였다. 전문가들은 투명성을 높이려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4 전반적 모금 환경은 작년에 비해 악화

기부금의 전체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모금의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다. 모금 시장이 저성장 국면에 진입해 모금의 어려움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영향으로 올해는 작년에 비해 기부 전망이 악화될 것이라 비관적 시각이 우세했다. 전문가들은 기업 기부는 작년과 비슷(45%), 개인 기부는 작년에 비해 감소(50%), 기부 참여율은 작년에 비해 감소(52.5%)할 것으로 보았다.

“주요 모금 기관의 정기 기부가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크게 나빠질 것이다+나빠질 것이다
61.3%



비슷할 것이다
35%

5 기부자의 관심은 다양한 분야로 확장

NGO **27.5%**

- 국내 복지·자선 **25%**
- 지역사회 발전 **21.3%**
- 문화 예술 **12.5%**
- 해외 구호 **8.8%**



현재 기부자들은 국내 복지·자선(65%) 분야를 가장 선호하며, 해외 구호(22.5%), NGO(3.8%)가 뒤를 이었다. 아직까지는 많은 기부자의 선호도가 국내 복지·자선에 몰려 있다. 특정 분야에 몰린 관심, 선호도가 향후에는 골고루 퍼져나갈 듯하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기부자가 NGO 분야(사회 권익 단체, 환경, 동물 보호 등), 국내 복지·자선, 지역사회 발전 순으로 주목할 것으로 예상된다.

* 향후 기부자들의 주목을 받을 분야

6 투명성과 신뢰가 가장 중요

올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이슈도 조사했다. 기부 관련해서는 비영리 투명성과 신뢰에 대해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가장 많았다. 급변하는 환경에서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그러기 위해선 투명성 가이드를 마련하거나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회 이슈 관련해서는 빈곤, 위기 가정 등 취약 계층 문제에 비영리가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고용·노동 이슈 대응(13.8%), 남북 협력·평화(11.3%)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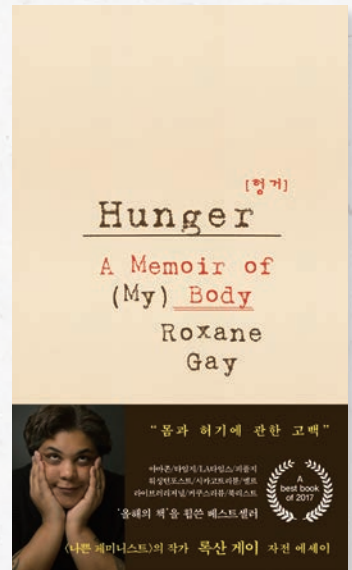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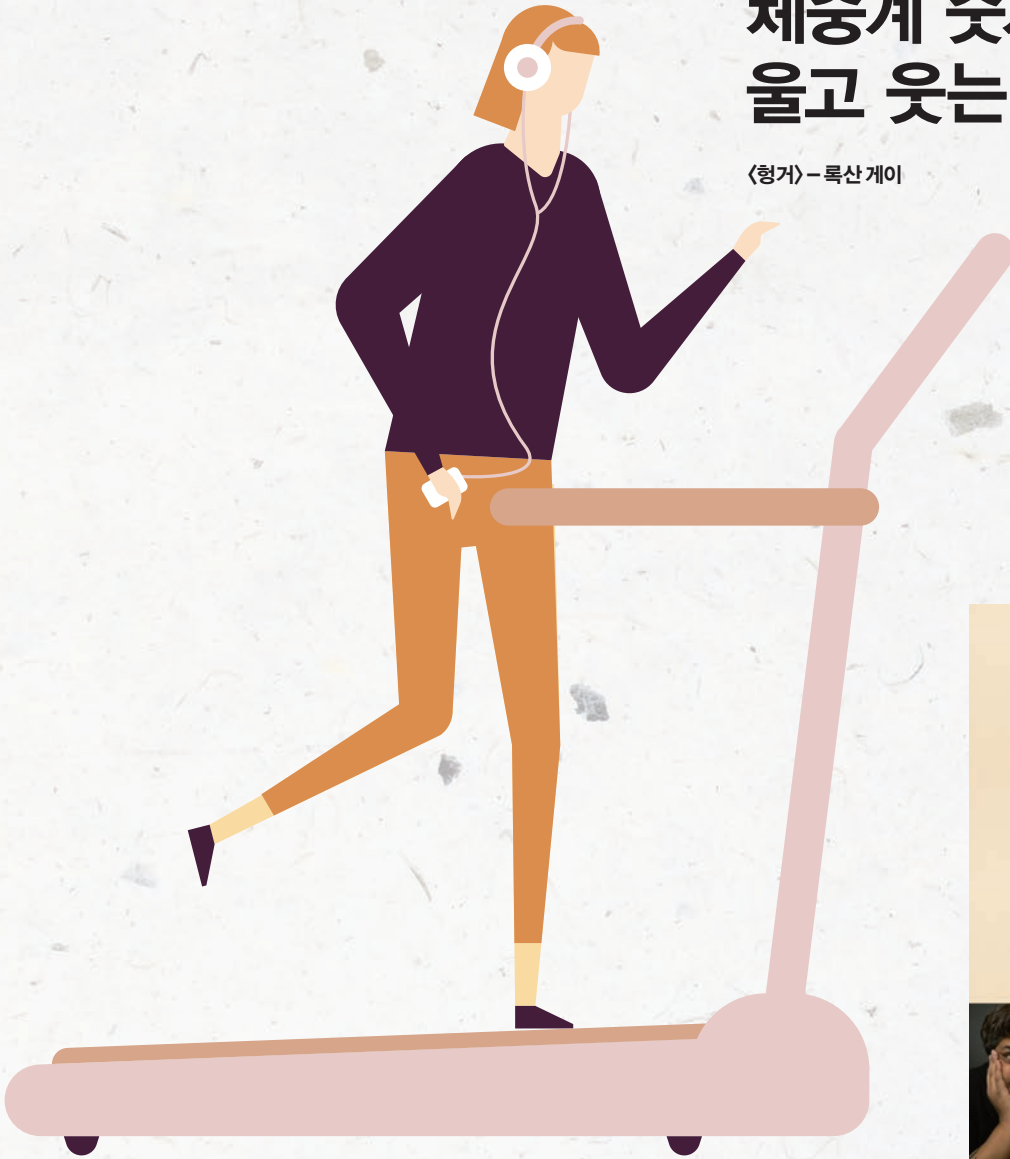
기부 관련 비영리 투명성과 신뢰
22.5%



사회 이슈 관련 취약 계층 지원
16.3%

체중계 숫자에 울고 웃는 당신에게

〈헝거〉-룩산 게이



“이야기가 나침반이고 건축”이라고 말한 것은 리베카 솔닛입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는 이야기로 길을 찾고, 성전과 감옥을 지어 올린다. 이야기 없이 지내는 건 북극의 툰드라나 얼음뿐인 바다처럼 사방으로 펼쳐진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그렇습니다. 삶은 경험과 궤적으로 이루어진 이야기의 성채이고 이야기 덩어리입니다.

몸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둔 당신

날마다 체중계에 올라서서 눈금을 확인하고 늘 살이 찢까 노심초사하는 당신, 체중이 조금만 늘어도 우울해지는 당신. 아무리 보기 좋다고 해도 당신은 내 말을 믿지 않습니다. 몸은 세상과의 경계, 그 최전선에서 복무합니다. 진실을 말하자면, 사람은 몸으로 살아갑니다. 몸과 동고동락하는 것, 그게 사는 것이지요. 타자는 몸과 얼굴로 우리를 식별하고, 우리를 호

명합니다. 몸을 떠나서는 어떤 삶도 있을 수 없겠지요. 하지만 몸이 정신이나 영혼의 도구 또는 부속물이 아니라 그 자체라 하더라도 삶의 전체성 안에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룩산 게이는 <헝거(Hunger)>에서 몸에 관해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신체, 즉 고도비만이라는 처지곤란한 몸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신이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있다면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폭식을 한 탓에 고도비만과 함께 “나는 가장 뚱뚱한 사람이야”라는 자의식을 갖고, 특정 음식에 꽂히면 며칠 동안, 때로는 몇 주 동안 그것을 먹고 먹고 또 먹는 모습이라니! 먹을 것이 사라질 때까지 끊임없이 먹어대는 이 어리석은 충동에서 자기 의지로 벗어나는 건 불가능한 일이지요. 죄책감과 자기혐오에도 불구하고 먹는 행위를 멈추지 못합니다.

“나는 남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의식한다. 이 세상 안에서 움직이는 내 몸에 관해 격렬하게, 끊임없이 몰두하고 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볼지 안다. 내가 일반적인 여성의 외모 기준에 관한 암묵적인 규칙을 깨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 <헝거> 중

룩산 게이는 몸이 뚱뚱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 타자들이 경멸하는 시선과 비웃음을 견디며 사는 게 얼마나 끔찍한가를 말합니다. 내향성과 사교성 부족으로 소외당한 인간, 제 몸의 통제력을 잃고 날마다 먹고 먹고 또 먹으며 비만이라는 함정에 빠진 한 인간의 고백은 충격을 안겨줍니다.

“갈색의 살덩이들이 내 팔과 허벅지와 배를 몇 겹으로 돌돌 말고 있다. 지방들은 내 팔다리 주변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더 이상 갈 곳이 없게 되자 그 살들 위에서 눕고 뺨을 자리를 만들어갔다. 나의 몸 곳곳에 살이 튼 자국들이 선명히 찍혔고 거대한 허벅지에는 셀룰라이트 주머니들이 출렁거렸다.” - <헝거> 중

몸을 넘어선 사람이 된다는 것

룩산 게이는 몸이 상징 자본이 되고, 조금만 뚱뚱해도 ‘병적인 비만’이란 프레임이 씌우며 ‘걸어 다니는 짐비’로 경멸하는 오늘날, 뚱뚱한 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 뒤를 뒤로 살핀 몸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룩산 게

이는 허기의 진실을 밝히면서 탐식 습관이 열두 살 때 당한 성폭력의 끔찍한 상처에서 도망가는 방편이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옳은 방식이 아니었지요. 현실과 맞서서 자기 목소리를 내야 했지요. 고통스러운 과거를 직시하고 지혜와 용기로 맞서며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 몸이 나의 존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했지요. 사람들이 다가와서 “당신 뚱뚱한 거 아니에요”라거나 “정말 훌륭한 분이시잖아요”라고 말하며 위로를 건넬 때 룩산 게이는 모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책은 체중 감량에 성공한 이야기, 다이어트 성공담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이야기지요. 엄청 살찐 몸뚱이로 인해 인격이 비하당하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잔인한 세상 속에서 고도비만으로 굴욕당하며 무너진 적 있는 한 여성의 실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무수한 사람이 어울려 삽니다. 삶은 저마다 다양한 이야기로 이루어집니다. 삶이라는 책은 자기만의 이야기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각자의 삶은 하나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다면 지구에는 70억 개의 다채로운 이야기가 펼쳐져 있는 셈이지요. 우리가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까닭은 그것을 길잡이 삼아 나아갈 길을 찾기 때문이었지요. 폭식증과 뚱뚱한 몸에 갇힌, 몸의 감옥에 자신을 가둔 한 여성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겠지요. 당신이 예쁜 몸이 아니라 건강한 몸, 마침내 ‘몸을 넘어선 사람’으로 활짝 웃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체중계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 건강한 당신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작가 장석주는 어린 시절부터 글쓰기를 동경해왔으며, 스무 살 때 시인으로 등단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후 시와 문학평론을 함께 작업하고 있다. 때로는 대학교수, 방송 진행자 등 다양한 곳에서 활약했으나 지금은 전업 작가로 살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쉬지 않고 글을 쓴 결과, 엮은 책이 100여 권에 달할 정도로 왕성한 글쓰기를 하는 문장노동가다.

동실동실 배 위에서 먹는 도다리썩국

“근심을 덜어주는 봄의 맛이네”

썩과 냉이는 봄을 알리는 전령이다. 꽃향기보다 진한 향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썩버무리, 썩탕 등 썩으로 만든 음식은 많지만, 봄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썩 음식은 ‘도다리썩국’이다. 보드라운 생선 도다리의 흰 살과 만난 썩은 제 기량을 마음껏 발휘한다. 향기만 따지자면 냉이도 썩 못지않다. 냉이국도 봄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향과 맛이 일품이다.

생선 만난 썩의 위로

몇 년 전, 한 배에서 먹은 도다리썩국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나른한 봄기운이 천지에 내려앉았을 때였다. 도다리잡이에 나선 이들과 함께 배를 탔다. 어부들은 아니었고, 낚시가 취미인 그들은 저마다 사연을 안고 승선했다. 자녀나 부모 걱정을 달고 사는 이도 있었고, 퇴직은 했으나 미래가 안갯속이라 걱정이 많은 사람도 있었다. 이런저런 고민을 바다에 드리운 낚싯줄에 달았다. 배 갑판에는 새침한 봄 햇살이 가득 깔렸다. “잡았어, 잡았어! 큰 놈이다! 허허.” 팔뚝만 한 광어를 잡은 이가 기쁨에 찬 말로 외쳤다. 부러움이 담긴 시선이 그에게 쫓겼다. “내 실력이 최고지!” 광어를 잡은 이의 기세가 쩌렁쩌렁 울렸다. 하지만 그 기세를 꺾은 이가 있었다. “도다리야, 도다리! 진짜는 도다리야!” 봄은 역시 도다리의 계절이다. 때마침 위장에서선 꼬르륵 소리가 났다. 그리고 어디선가 밥 냄새가 풍겨왔다. 고개를 빼죽 들어 살피자 뽀얀 흰쌀밥을 그릇에 담은 선장이 보였다.



오랜만에 본 하얀 쌀밥은 신기했다. 선장은 말했다. “오세요, 오세요. 도다리썩국입니다.” 근사한 밥상은 아니었다. 열댓 명이 갑판에 모여 둘러앉았다. 우리 앞엔 도다리썩국 한 그릇과 흰쌀밥 한 공기가 놓였다. 반찬은 거의 없었다. 흔한 김치도 없었다. 속으로 ‘별맛이 있겠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생선 기름이 동동 뿜는데, 전혀 비리지 않았다. 뽀얀 국물엔 구수한 감칠맛이 퍼져 있었다. 생선을 한 젓가락 집어 입안에 넣자 아기 피부 같은 보드라운 질감이 혀를 잡아끌었다. 된장을 적당히 푼 국엔 인공 조미료는 들어가지 않고 소금만 조금 들어갔다. 맛에 반했다. 노동자가 송아지 눈망울만큼 커졌다. 우리는 모이를 쪄는데 여념이 없는 참새처럼 고개를 그릇에 처박고 정신없이 먹었다. 허기를 살짝 채우자 그제야 국에 풍당 빠져 흐물흐물해진 썩이 보였다. 사람들의 얼굴에선 빛이 났다. 배에 오를 때의 표정과는 사뭇 달랐다. 묻어 있던 걱정이 열여졌다. “속이 시원하네.” “뽕 돌리는 기분이다.” “도다리썩국이 이렇게 맛이 있었네!” 즐거운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의 일상 고민은 바닷속 저 멀리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미소가 퍼진 얼굴에 힘이 솟았다. 도다리썩국 한 그릇이 일으킨 기적이었다. 선장은 만물이 생동하는 봄의 생명력을 도다리썩국에 녹여냈다. 그날 도다리썩국은 배를 채우기 위한 음식이 아니었다. 세상을 살아갈 용기와 기운을 선물한 영양제였다. 갓은양념을 바르고 또 발라 호화롭기만 한 음식과는 달랐다. 덧셈이 아닌 뺄셈인 음식이었다. 우리 삶도 때때로 도다리썩국처럼 양념을 빼고 뺄 맛일 때가 있다. 마이너스 인생이라도 낙담할 필요는 없다. 뺄셈 인생에도 행복은 있다.

할머니 쿡은 손마디에 스며든 삶의 향기

맛은 재료가 80%라는 말이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요리사도 자신의 기술보다 재료의 참맛에 기대 신메뉴를 개발한다. 몇 년 전이었다. 봄기운이 완연한 3월, 보따리 하나 메고 길을 나섰다. 냉이를 찾아서였다. 충청도의 한 마을, 동네는 조용하고 허름했다. 흔한 농촌 마을 풍경이었다. 소개받은 농부가 안내한 냉이밭은 너르고 아늑했다. 쭈글쭈글한 손으로 냉이를 캐는 농부와 그의 아낙네가 보였다. 흙먼지 사이로 국화 한 송이가 피어오르듯 냉이가 땅 위로 몸을 드러냈다. 칠순이 넘는 그들의 손에서 냉이가 꽃처럼 피어난 것이다. 천국의 채소 같았다. 하지만 맛만 좋아서가 아니다. 노부부의 노동이 배어 있기 때문이다. 노동은 순수하다. 그들을 따라 동네에 갔다가 도다리썩국만큼 잊지 못할 맛을 만났다. 농부의 아내가 데리고 들어간 작은 점포. 그곳엔 할머니 여러 명이 앉아 있었다. 마침 점심때였는데, 한 할머니가 뭔가를 건넸다. 손바닥에 썩 들어갈 정도 크기의 김말이었다. 까만 김 사이에 흰쌀밥이 꼭꼭 말려 있었다. 밥



은 따스했고, 김은 갓 구워 바삭했다. 참기름을 바르지 않은 마른 김이었다. 한 입 베어 물자 입안에 봄 냄새가 가득 퍼졌다. 참 신기했다. 흰쌀밥과 김뿐인데 말이다. 할머니의 말 한마디에 의문이 풀렸다. “냉이 간장 어때요? 맛나지? 오늘 아침에 만들었어.” 흰쌀밥 사이에 뿌린 양념은 그냥 간장이 아니라 냉이를 잘게 썰어 간장과 섞은 양념이었다. 평범한 재료에 맛의 날개를 달아준 것이 냉이었다. 집에 돌아와 그 양념을 직접 만들어 봤지만, 도통 그 맛이 안 났다. 할머니가 쭈글쭈글 주름진 손으로 만든 냉이 간장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삶을 오롯이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가지는 넉넉함이 냉이 간장에 스며들어 있었다. 할머니의 세월이 그 냉이 간장에 녹아 있었다. 근심을 묻은 도다리썩국과 삶이 녹아든 냉이 간장은 지금 우리를 돌아보게 한다. 순박한 맛은 현실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원동력이다. ♣



박미향 기자는 한겨레신문 ESC 팀장 겸 음식문화 기자로 다양한 맛에 대한 글을 쓴다. 사진도 찍는 음식 기자로 유명하며 <그곳에 가면 취하고 싶다>, <박미향 기자 행복만 맛집을 인터뷰하다> 등 음식 관련 저서를 여러 권 출간했다. 음식의 무궁무진한 세계에 폭 빠져 살고 있는 유쾌한 ‘맛’ 기자다.

피로를 훌훌 날리는 봄날의 티타임

창가에 앉아 향긋한 차 한잔 즐기면 딱 좋은 봄날이다.
습관처럼 마시던 커피 대신 차를 마셔보는 것은 어떨까.
스트레스와 피곤함을 날리는 데 도움 되는 차를 준비했다.
코끝에서 느껴지는 향긋한 차향을 음미하며
여유로운 티타임을 즐겨보길.

건강한 티타임을 위하여

런던의 King's College 연구팀은 하루 석 잔의 차를 마시는 것이 단순히 생수를 마시는 것보다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차는 몸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해주고, 꾸준히 마시면 각종 질환을 예방하고 완화해주며, 심지어 암까지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것. 매일 섭취하는 수분 중 상당량을 차로 마시면 좋은 성분이 몸속에 누적되어 약효를 볼 수 있기 때문. 또한 몸속에 쌓이는 노폐물을 제거해 원활한 혈액순환을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해 체온을 높여주며,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그렇다면 차를 어떻게 마셔야 내 몸에 도움이 될까? 너무 뜨거운 상태보다는 미지근한 상태에서 마시는 것이 좋다. 만약 열이 많은 체질이라면 차를 시원하게 마셔도 괜찮다. 또한 좋은 성분이 많이 우려나도록 진하게 끓이거나 우려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보다는 맑고 연하게 끓이거나 우려내는 편이 좋다. 추위를 많이 타고 피로를 잘 느끼는 체질은 아침이나 오전에, 반대로 더위를 많이 타고 입이 자주 마르면 오후나 저녁에 마시길 권한다.

날씬하고 건강한
셀럽이 선택한

우영차&보이차



여자 연예인 중에는 운동과 식단 조절 외에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차를 즐겨 마시는 경우가 많다. 배우 유이는 우영차, 가수 이효리는 보이차를 즐겨 마시는 걸로 알려졌다. 우영차는 체내의 콜레스테롤을 배출해주는 역할을 한다. 올리고당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포만감을 느끼고, 배변을 촉진해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보이차의 핵심 성분인 갈산은 지방 축적을 억제하고, 체내 지방을 줄여줘 체중 감량이 필요한 여성에게 큰 사랑을 받는다.

잠도 오지 않고
우울한 날에는

라벤더차



라벤더의 향기는 기분을 좋게 만든다. 라벤더의 향긋한 향에는 아세트산리날릴, 리날올, 피넨, 시네올 등의 성분이 들어 있다. 이 성분들은 정신적·신체적 긴장을 완화해주고 심신 안정 효과와 스트레스를 해소해준다고 알려져 있다. 피로와 불안감 해소, 두통, 소화불량 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라벤더 향을 맡으면 편안하고 깊은 잠을 유도해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좋다. 고대 로마와 그리스에서는 라벤더차를 불면증, 우울증, 불안증을 해소하는 약으로 처방했을 정도로 오래된 역사를 자랑한다.

미세먼지가 심한
답답한 날에는

녹차



최근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럴 때 마시면 좋은 차가 우리에게 익숙한 녹차다. 녹차가 미세먼지 제거에 효과가 있기 때문. 녹차에 들어 있는 카테킨과 타닌은 체내에 축적된 수은과 납, 카드뮴 등 중금속과 결합해 몸속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고, 몸 밖으로 배출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면역력까지 높여준다. 녹차는 가끔씩 따뜻하게 마시는 것이 좋다. 식후 바로 녹차를 마시면 식사하면서 섭취한 철분 흡수를 방해하므로 식후 최소 30분이 지난 후에 섭취하면 좋다. 단 너무 많이 마시면 카페인 중독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한다.

야속하게 흐르는
시간을 멈추고 싶다면

서리태차



서리를 맞은 뒤에 추수한다고 해서 서리태라는 이름이 붙었다.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부를 정도로 효능이 다양하다.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이 풍부해 일반 콩보다 4배가량 높은 항산화 작용을 한다. 탈모 예방, 노화 방지는 물론 시력 개선, 암·고지혈증·당뇨병 등의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레시틴 성분이 풍부해 치매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집에서 만들어 먹는 방법은 간단하다. 깨끗이 씻은 서리태를 프라이팬에 30분 이상 충분히 볶는다. 물과 함께 넣어 센 불에서 끓이다가 끓어오르면 약한 불로 줄여 30분 정도 더 끓이면 된다.



면역력을 높이고 싶다면 자몽차

자몽의 쓴맛을 내는 나린진(Naringin) 성분은 천연 항암 물질이라 부를 정도로 우리 몸에 이로운 작용을 한다. 항바이러스, 항균, 항염증 효과가 있어 체내 면역력을 강하게 만들어준다. 또한 자몽은 하루에 반 개만 먹어도 비타민 C 하루 필요량을 모두 섭취할 정도로 비타민 C 함량이 높아 건강에 좋다. 다만 고혈압 약과 자몽을 같이 먹으면 약효가 떨어질 수 있으니 피해야 한다.



춘곤증 때문에 졸리고 피곤하다면 오미자차

춘곤증은 몸이 봄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춘곤증 때문에 괴롭다고 커피나 에너지 음료를 찾는 것보다 오미자차를 마시는 게 좋다. 오미자에는 비타민과 유기산 성분이 풍부해 피로를 해소해주고, 기운을 내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뇌 기능을 활성화하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만들어준다. 꾸벅꾸벅 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봄의 오후, 오미자차 한 잔이면 춘곤증을 이겨낼 수 있다.



피부가 푸석푸석할 때 레몬사과차

최근 두 가지 이상의 재료를 조합하는 블렌딩 티가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레몬과 사과를 블렌딩한 레몬사과차는 비타민 C 성분이 풍부해 다양한 효능을 볼 수 있다. 비타민 C는 지금처럼 일교차가 클 때 감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미 감기에 걸렸다고 해도 증상을 완화해준다. 또 피부 미용에도 빛을 발한다. 기미와 주근깨를 억제하고 혈색을 좋게 하며, 건강하고 생기 있는 피부로 바꿔준다.



봄철 식중독을 예방하는 매실차

일교차가 심하고, 기온이 점점 높아지는 봄에는 식중독을 조심해야 한다. 만약 식중독 증세가 있다면 매실차를 마시면 호전된다. 매실의 피크르산이 간 기능을 활발하게 해 독성 물질을 분해해 식중독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구연산, 사과산, 카테킨산 등 매실에 풍부한 유기산은 과다 분비되는 위산을 조절한다. 체했을 때 또는 식사 후에 매실차를 마시면 소화에 도움이 된다.

착한가게로 차 마시러 오세요 북카페 품



주소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14가길 14

영업시간 오전 6시 30분~오후 7시(매주 일요일 휴무)

두 팔 벌려 안아주는 가슴을 뜻하는 품의 옛말 '품'처럼 북 카페 품은 들어오는 이를 모두 품어주는 따뜻한 공간이다. 카페를 운영하는 김종민·박성원 부부는 2016년부터 사랑의열매 착한가게에 가입해 꾸준한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이름만큼이나 '품'이 큰 부부다. 따로 홍보하지 않아도 입소문으로 단골이 된 손님이 많을 정도로 메뉴 하나하나가 맛있다는 후문. 과일차 대부분은 직접 재료를 손질해 만드는 등 정성이 대단하다. 공부에 지친 수험생이 감기에 걸리면 북 카페 품의 과일차로 몸을 회복하기 위해 일부러 들른다고 한다. 입맛에 맞게 주문이 가능하며 재료만 있으면 메뉴에 없는 음료도 똑딱 만들어주는 맞춤형 주문도 받고 있다. 맛있는 차를 마시러, 조용히 공부하거나 책을 보러 가도 항상 좋은 곳이다.

봄꽃 말고 봄꽃차

꽃을 꼭 보기만 하라는 법은 없다. 봄꽃차는 향긋한 향과 맛도 좋지만, 따뜻한 물에서 마치 꽃이 피어나듯 우려내는 환상적인 모습까지 더해져 보기에도 먹기에도 좋은 차다. 계절의 여왕 봄에 꼭 어울리는 봄꽃차를 소개한다.



벚꽃차

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꽃, 벚꽃도 차로 마실 수 있다. 향이 강하거나 화려하지 않고 은은하게 퍼져 처음 꽃차를 접하는 사람도 무리 없이 즐길 수 있다. 벚꽃에는 해독 작용이 있어 숙취 해소, 식중독 완화에 좋고 당뇨병·습진·기침 등에도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목련꽃차

‘고귀함’이란 꽃말을 지닌 목련꽃차는 개화하기 전 봉오리 상태일 때 차로 만든다. 그래서 차로 우려냈을 때 꽃말처럼 고귀하고 우아한 모습이다. 맛은 신 편이지만 향이 좋다고 알려졌다. 축농증, 비염 등 기관지 알레르기나 염증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마시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



매화꽃차

향기를 마시는 차라고 할 정도로 시원한 향이 기분 좋게 입안을 감싼다. 갈증 해소, 숙취 제거에 좋고 가슴이 답답하고 더부룩할 때 소화를 촉진하는 역할도 한다. 머리가 맑아지는 효과도 있으며,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가꿔준다.





**동국제강·SBS·사랑의열매,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 업무 협약**

동국제강과 SBS, 사랑의열매가 3월 26일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을 위한 철근 기부'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SBS의 사회 공헌 사업 중 하나인 '농어촌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 사업'에 동국제강과 사랑의열매가 협력하며 성사되었다. 동국제강은 건립에 필요한 건축형 철근 100여 톤과 외장재인 렉스틸을 기부한다. SBS는 오는 5월과 11월에 <특집 희망TV SBS>,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착공 및 완공식을 방영할 예정이다. 건립 지역은 모두 세 곳으로 충북 옥천군, 경북 영양군, 그리고 한 곳은 현재 심사 중

이다. SBS의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 지원은 이번까지 총 10개소이며, 이 중 2개소(경북 봉화, 경북 청송)는 지난해 8월에 사랑의열매를 통해 여성 경제인 성금 8,000만 원으로 건립했다. 김연극 동국제강 사장은 "농어촌은 교육과 문화적 혜택이 적어 부모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들이 걱정 없이 공부하고 뛰어놀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연준 SBS 시사교양본부 국장은 "사회적 돌봄 서비스가 미비한 지역의 아동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으며, 김연순 사랑의열매 사무총장은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나눔의 소중함을 전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SGI서울보증, 열악한 지역사회 복지시설을 위한 후원금 전달
 SGI서울보증은 지난 12일 기부금 2억 5,000만 원을 서울 사랑의열매(회장 윤영석)에 전달했다. 지난해부터 서울 사랑의열매를 통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SGI서울보증은 '미래 세대의 성장과 자립 지원'이라는 사회 공헌 슬로건을 내건 착한기업이다. SGI서울보증 김상택 사장은 "고객에게 받은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고, 지역사회 곳곳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마जू협회, 소속 마जू 명의로 장애인 스포츠 선수 지원
 서울마जू협회는 지난 17일 'Hope, Great Challenge' 프로젝트 선포식과 함께 사회 공헌 기부금을 전달했다. 본 프로젝트는 장애인 스포츠 선수들의 훈련 활동과 의족 및 보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신규 사회 공헌 사업이다. 서울마जू협회 강석대 회장은 "앞으로 장애와 편견을 넘어 꿈에 도전하는 장애인 스포츠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희망의 다리가 되어주기 위해 서울마जू협회와 마जू들이 힘을 모을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

한화첨단소재, 에코스쿨 장학금 6,150만 원 기탁
 한화첨단소재(대표 이선석)는 19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김종남 한화첨단소재 세종사업장, 최교진 세종시교육청 교육감, 김동후 세종 사랑의열매 사무처장, 김봉주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진흥재단 세종시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화 에코스쿨 장학금 6,150만 원 전달식을 진행했다. 한화 에코스쿨은 태양광 에너지, 인공지능 화분 만들기, 친환경 스마트 하우스 등 다양한 첨단 과학을 체험해볼 수 있는 찾아가는 과학 교실이다.



세종시 금남면 청와삼대 식당, 착한가게 가입
 세종시 금남면 청와삼대 식당이 중소자영업자 정기 기부 나눔 캠페인 착한가게에 가입했다. 지난달 7일 현판식을 했는데, 앞으로 청와삼대 식당은 매월 매출액의 일부를 기탁해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한다. 안근희 청와삼대 대표는 "식당 일로 분주해 따로 시간을 내 봉사 활동이나 나눔을 실천하기 어려웠는데, 이렇게 정기 기부를 통해 동참할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인천

인천벤처기업협회, 나눔리더 25명 단체 가입

지난달 18일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회장 서동만) 회원 25명이 나눔리더에 단체 가입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뜻을 함께하고자 동참한 회원 25명이 2,500만 원의 성금을 모아 동시에 가입한 것. 서동만 회장은 “장기 불황에 따라 벤처기업도 힘든 상황이지만, 인천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회원사 대표들에게 참여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의약사회, 이웃사랑 성금 400만 원 전달

인천 사랑의열매(회장 정명환)는 23일 인천로얄호텔에서 개최한 인천광역시의약사회(회장 최병원, 이하 인천약사회) 제38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웃사랑 성금 4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번에 전달받은 성금은 인천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한부모 가정 및 청소년 등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인천약사회는 2011년부터 매년 기부금을 전달해왔는데, 이번 금액을 포함해 약 4,100만 원에 달한다.

부산

박성진 아너, 초고액 기부자 클럽에 가입

부산 아너 소사이어티클럽 회장이자 에스제이탱커(주) 대표이사 박성진 아너는 10년 동안 부산 지역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누적 기부액이 3억 원으로 하이클래스 아너 소사이어티가 되었고, 5억 원 기부를 약속하며 노블레스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했다. 박성진 아너는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길 바라는 마음에 기부를 한다”고 밝혔다.



제1회 부산아너 소사이어티 조찬 포럼 개최

2019년 3월 18일 오전 7시 부산롯데호텔 41층 에메랄드룸에서 제1회 아너 소사이어티 조찬 포럼이 열렸다. '이 시대 왜 이타주의인가'라는 주제로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한동우 교수의 강연으로 시작했다. 이번 포럼은 부산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들에게 공공선을 높이기 위한 나눔 실천에 대한 논의와 이 시대 우리가 지녀야 할 가치관에 대해 얘기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광주

주식회사 럽피, 광주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화장품 전달

2월 27일, 주식회사 럽피(대표 허상범)는 광주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광주 사랑의열매(회장 한상원)에 3,60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전달했다. 럽피코스메틱 고지인 상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화장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족에게 좋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지속적으로 사회 공헌 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메르시아이프, 취약 계층 청소년 위한 문화 탐방·장학금 지원

(주)메르시아이프(대표이사 이광은)는 2월 28일 광주 사랑의열매(회장 한상원)에 취약 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 탐방, 장학금 1,520만 원을 전달했다. (주)메르시아이프 이광은 대표이사, 오치세우는작은도서관 차기우 대표, 광주 사랑의열매 이성도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전달식에서 이광은 대표이사는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

화성세탁기, 700만 원 기부

산업용 세탁기의 명가라 불리는 화성세탁기(회장 고창오)는 3월 7일 이웃사랑 성금 700만 원을 전달했다. 1980년에 설립한 화성세탁기는 2011년부터 자체 생산한 세탁기와 건조기를 꾸준히 기부해왔다. 현재까지의 기부 총액은 약 3억 5,000만 원 정도 된다. “전달한 성금이 소외된 이웃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좀 더 나은 대구가 되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속적인 나눔을 약속했다.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의 착한 솔선수범

대구 중구 동인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착한일터’에 가입했다. 착한일터는 매달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직원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야 하는 뜻깊은 기부이다. 십시일반 모인 성금은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소외된 이웃에게 의료비 및 생계비로 지원한다. 이희정 대구 사랑의열매 사무처장은 “최근 직장인의 뜨거운 나눔 실천으로 착한일터가 늘어나고 있다. 소중한 성금을 해당 지역의 이웃에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울주군 첫 번째 부부 아너 성금 전달식

이규진(39호 아너), 김필자(82호 아너) 덕원농장 대표이사는 울주군의 저소득 계층을 위해 각각 2,000만 원씩 기부했다. 이규진 아너는 이번 기부로 약속한 1억 원을 완납하게 됐다. “그동안 나눔에 동참하면서 행복한 마음이 가득했다. 앞으로도 나눔 활동을 하며 열심히 살아가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김필자 아너는 “나눔을 실천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배웠다. 남편과 함께 어려운 이들을 돕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울산 최고령 아너 탄생

강영선(84호 아너) 아너는 2019년 울산의 첫 번째 아너 가입자일 뿐 아니라, 올해 88세로 최고령 아너이기도 하다. 88세 미수(米壽)를 맞아 그동안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며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빛은 주위를 밝히고 나눔은 재기의 기회가 된다. 긴 세월을 살면서 고비도 많았지만 지금까지 살아 있다는 게 행복이고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편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기회가 되는 나눔을 실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장서는 기부, 나눔리더 5·6호 가입식

한 달에 나눔리더 2명이 탄생했다. 3월 13일 대전종합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김태범 변호사와 제일화방 김영기 대표가 그 주인공. 김태범 변호사는 “나눔리더에 가입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고, 함께 나눌 수 있어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김영기 대표는 “나눔리더에 가입하게 되어 영광이다. 앞으로도 봉사 활동과 기부를 지속적으로 하고,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나눔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대전 사랑의열매 포커스그룹 인터뷰 진행

대전 사랑의열매는 2019년 전국기획사업 시행에 앞서 관련 기관과 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지역사회 문제의 시범적 해결을 위한 포커스그룹 인터뷰(F.G.I)’를 진행했다. 3일간 진행한 이번 인터뷰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초기 적응 지원, 취약 계층 임신·출산 지원을 통한 초기 양육 환경 조성 및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 체계 구축 등 총 3개 분야에 대한 본 사업의 시행 배경과 취지를 전달했다. 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도 마련했다.

용인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간담회 개최

경기 사랑의열매(회장 이순선)는 3월 6일 백군기 용인시장과 용인 시 아너 회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박종원 서원컴프레사 대표, 한주식(주)자산 대표, 박노일 광일토건 대표, 김철수 신포리꾸꾸미 대표 등 용인시 고객 기부자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들이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역 복지 발전과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농협은행 동두천시지부 착한일터 2호 가입

동두천시청에 이어 농협은행 동두천시지부가 착한일터 2호로 가입했다. 3월 27일에 진행된 가입식에는 최용덕 동두천시 시장, 남상식 농협은행 동두천시 지부장 및 임직원, 송용민 동두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남상식 농협은행 동두천시지부장은 “동두천시 관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쓰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성금은 독거노인 반찬 자원, 이동식 죽 사업,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지원, 저소득층 집수리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70번째 강원 아너 소사이어티, 박태권 아너

2019년 3월 5일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식이 있었다. 동해 추암횃집 박태권 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강원도에서 70번째이며 동해시에서는 두 번째로 탄생한 아너 회원이다. 박태권 대표는 2013년부터 꾸준히 나눔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누적 기부금 9,000만 원 전달했다. 박태권 대표는 보다 더 깊은 나눔을 하기 위해 2019년 황금돼지해에 5년간 추가로 1억 원을 기부하는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했다.



이모네불막창의 뜨거운 기부

춘천시 퇴계동에 위치한 이모네불막창 퇴계점(대표 이동선)이 기존 석사점을 퇴계점으로 이전하면서 매달 해오던 정기 기부 외에 3월 12일에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달라며 100만 원을 추가 기부했다. 이모네불막창의 정기 기부는 2014년 착한가게 524호로 가입하면서 시작했다. 착한가게는 매월 매출액의 일정 금액을 기부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하는 사랑의열매 정기 기부 방식이다.

문경환 아너, 3개월 만에 기부금 1억 원 완납

강진신탁 제13대 이사장 문경환 회장은 지역사회에서 받은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고자 2018년 11월 27일 2,000만 원을 기탁하며 아너 소사이어티 전남 78호(강진 3호) 회원이 되었다. 그로부터 3개월 뒤, 2019년 2월 26일 전달식에서 8,0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하면서 기부금 1억 원으로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의 조건을 충족시켰다. 문경환 아너가 기탁한 기부금은 저소득 주민 생계비, 다문화 가정 프로그램 운영 및 노인복지시설의 응급 차량 구입에 사용할 계획이다.



장흥 1호 부부 아너가 된 김종근·박윤희 대표

장흥 님프만 대표 김종근·박윤희 부부는 2007년부터 매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이불을 기부하며 꾸준히 나눔을 실천했다. 김종근 대표는 2016년 6월 전남 40호(장흥 4호) 회원으로 가입했고, 이후 박윤희 대표가 전남 82호(장흥 4호)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부부 아너 장흥 1호(전남 부부 아너 8호)로 등록되었다. 박윤희 대표는 “남편과 함께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유)대산테크, 전북 착한가게 1900호 가입

익산에 위치한 (유)대산테크(대표 김영관)가 전북 지역 착한가게 1900호로 가입했다. 김영관 대표는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뿌듯하다”면서 “우리 이웃이 곧 우리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꾸준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판식에 함께한 김춘성 익산시 오산면장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착한가게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기부하신 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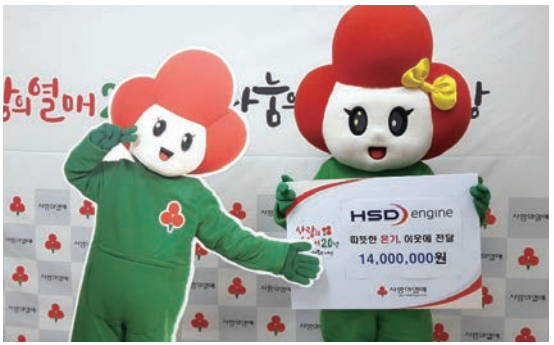


2006년생 김성현 군, 전북 최연소 나눔리더 가입

전북 지역 최연소 나눔리더가 탄생했다. 그 화제의 주인공은 2006년생 김성현 군으로 2012년부터 용돈을 모은 돼지 저금통 기부를 시작하면서 사랑의열매와 인연을 맺었다. 2014년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나눔에 동참하던 김성현 군은 올해 중학교 입학 축하금으로 받은 용돈을 모아 기부하며 나눔리더에 가입했다. 김 군은 “어려운 친구들의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에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HSD엔진, 1,400만 원의 따뜻한 기부

36년간 선박용 엔진을 전문으로 생산해온 HSD엔진(대표이사 고영열)의 임직원들이 월급의 일정액을 모아 경남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모은 성금 1,400만 원은 에너지 빈곤층과 관내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 계층 및 응급 상황에 놓인 이웃 54세대에게 의료비, 생계비, 재해·재난비로 지원되었다. 이 밖에도 HSD엔진은 창원시 관내 아동 그룹홈, 농촌 어르신과 장애학교 등 소외 계층에 후원 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변 중학교에 재능 기부도 한다.



한국지엠한마음재단, 치과 치료 지원금 전달

한국지엠한마음재단은 한국지엠 임직원들이 모여 만든 사회복지법인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창원시 관내 저소득층을 위해 500만 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한국지엠 창원 공장 이승원 팀장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치아 건강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지원금은 네티나무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저소득 아동과 마산애육원 입소자들의 치과 치료에 사용할 것이다.

문화 프로젝트 ‘열매야 놀자’ 지원 사업 성과 보고회

경북 사랑의열매(회장 신현수)는 2월 22일 김천녹색미래과학관에 서 문화누리 프로젝트, ‘열매야 놀자’ 지원 사업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열매야, 놀자’는 대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문화 참여 기회가 적은 경북 지역 아동들에게 다채로운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고회에는 복지시설 관계자와 신혜영 경북 사랑의열매 사무처장, 이영암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성주 2호) 등이 참석했다.



영천 사랑의열매, 기부자 8명에 나눔리더 인증서 전달

3월 14일, 경북 사랑의열매는 서수양 성림식당 대표 등 8명의 기부자에게 나눔리더 인증서를 전달했다. 이날 가입식에는 최기문 영천시장, 신혜영 경북 사랑의열매 사무처장, 신규 나눔리더 8명이 참석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나눔리더 여러분과 함께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나눔을 실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나눔리더는 ‘개인 기부자’로 지난해 11월 최기문 영천시장을 1호로 현재 18호까지 등록됐다.

충남지회, 2019년 권역별 배분 사업 설명회 개최

충남 사랑의열매(회장 이관형)는 충남 지역 사회복지 기관과 시설들의 원활한 배분 사업 신청과 2019년 신규 기획 사업 안내를 위해 3월 8일(보령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3월 12일(예산군 청소년수련관 비전홀), 3월 13일(국립공주박물관 강당) '2019년 권역별 배분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지역사회 변화와 돌봄 사업에 중점을 둔 의제별 전국기획사업으로 4개 신규 사업을 안내했으며, 차량 지원 사업과 소규모 복지 기관 지원 사업도 소개했다.



도내 기업 사회 공헌 확대를 위한 실무자 워크숍 진행

충남 사랑의열매는 14일, 삼성디스플레이 아름다운 연수 복지동에서 기업 사회 공헌 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상반기 충남 도내 기업 사회 공헌 실무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기업 지정 기탁 사업 우수 사례 현장방문, 지역사회 욕구 중심의 사회 공헌(CSR) 전략 세우기 특강, 모금회와 연계한 사회 공헌 사업 안내, 도내 사회 공헌 담당자의 네트워킹 시간 등 충남 도내 지역 복지 수요에 맞는 사회 공헌을 확대하기 위해 실무자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북 사랑의열매, 제천희망천사운동 협약식

충북 사랑의열매는 3월 5일, 제천시 관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제천시청, 제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제천희망천사운동'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복지에 관심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모금 운동을 벌이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주민 참여 홍보에 힘쓰기로 했다. 충북 사랑의열매 이명식 회장은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나눔 문화 확산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괴산 사랑의열매, 괴산군과 괴산사랑희망나눔사업 업무 협약(MOU)

충북 사랑의열매는 3월 8일, 괴산군 괴산사랑희망나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다. '괴산사랑희망나눔사업'이란 더불어 잘 사는 괴산을 만들기 위해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어려운 형편에 놓인 복지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차영 군수는 "업무 협약을 계기로 괴산사랑 운동이 조속히 정착되며, 모두가 잘 살고 행복한 괴산이 실현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제주

광동제약, 1억 원 상당의 성금과 물품 지원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은 제주 사랑의열매와 '광동제약과 함께 하는 사랑의 나눔 행사'를 개최하고 1억 원 상당의 물품과 성금을 전달했다. 광동제약은 2013년부터 제주 사랑의열매를 통해 1억 원 상당의 물품과 성금을 지속적으로 기부해왔다. 전달식에 참석한 구준모 이사는 "제주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내 취약 계층 지원에 앞장서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소외 계층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제주로타리클럽, 희망나눔키우기 지원사업 사업비 지원

신제주로타리클럽(회장 박경섭)은 2013년 제주 사랑의열매와 '희망나눔키우기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물품과 성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지원한 1,915만 8,000원은 노숙인의 자활·자립을 위한 자존감 향상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공연 활동 프로그램 사업비로 사용한다. 박경섭 회장은 "지역사회 여러 분야의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봉사 활동 전개를 기 위해 회원들과 함께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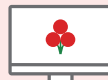
사랑의열매 다양한 기부 방법



문자 기부
#9004
한 통에 2,000원



ARS 기부
060-700-1212
한 통에 3,000원



온라인 기부
같이가치
with kakao



기념일 기부
좋은 날, 기쁜 마음을
함께 나눠요
문의 02-6262-3082



이벤트 기부
즐거운 행사와
사랑 나눔을 함께
즐거보세요



**상담 혹은 문의가
필요하다면**
080-890-1212



계좌 기부

예금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민 003137-04-000306
농협 1082-01-001966
신한 100-013-446845
외환 068-13-21097-3
우리 052-581567-13-101
하나 399-810005-31705



참 좋은 당신이 있어 세상이 1℃ 따뜻해집니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1억 원 이상을 기부했거나 5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개인 고액 기부자의 모임입니다.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더 밝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사회 지도자들입니다. 국내 최초 고액 기부자 모임이자 국내 최대 기부자 클럽으로, 한국형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나눔을 실천하고, 사랑의 가치를 창조해나가며 기부 문화 확산을 이끌고 있는 가슴 따뜻한 리더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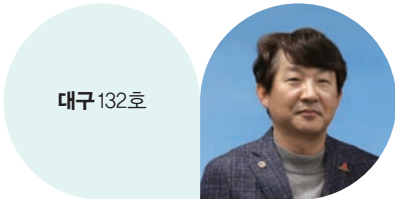
경북 100호

문점숙 김무영 엠택 대표(김천 1호 아너) 배우자
“남편의 조언에 따라 김천과 경북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드리고 싶어서 가입했습니다. 많은 분에게 따스한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북 101호

주재동 동도농산 대표
“경북 사랑의열매와 같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어 기쁩니다. 앞으로도 더 큰 나눔과 실천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싶습니다.”



대구 132호

심삼도 메트로안과 원장
“병원이 이만큼 성장하고 현재 행복한 것은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사랑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과 나누고 싶습니다.”



대구 133호
대구 134호

조영원 (주)우리시스 회장
이선이 조영원 회장 배우자
“우리가 현재 행복한 것은 주위로부터 받은 많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많은 분과 이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지역에 더 많은 아너가 탄생해 나눔으로 행복한 대구가 되길 바랍니다.”



대구 135호

김관한 에스앤인터내셔널 대표

“많은 것을 움켜쥐고만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을 놓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살아오며 많은 도움을 받아왔고 이제는 제가 도움을 줄 때인 것 같습니다. 나의 작은 나눔이 따뜻한 사랑으로 전해져 소외된 이웃들과 더불어 행복한 대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구 136호

한무경 효림그룹 회장

“나의 나눔이 소외된 이웃에게 작은 희망으로 전해졌으면 합니다. 대구에 더 많은 여성 아너가 생겨 1907년 여성들이 앞장선 국채보상운동의 정신을 계승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140호

故 **박영자** 여사

이들 전정송 대표는 “나눔을 알려주신 어머니의 정신을 기리고자 고인의 이름으로 가입하게 됐습니다. 나눔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모두 더불어 행복한 대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전남 82호

박윤희 장흥 님프만 대표,

김종근(전남 40호) 배우자, 장흥 1호 부부 아너
“남편과 함께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울산 84호

강영선 前 울산상공의원

“빛은 어두운 주위를 밝히고, 나눔은 재기의 기회가 된다고 생각해 항상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이제는 편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기회가 되는 나눔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석양에 비치는 작은 노을의 아름다움처럼 보고 듣는 이에게 귀감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기 201호

김재택 수지의료재단 요양병원장

“인화동락, 어진 덕을 베풀어 화합하며 함께 즐거워한다는 이념을 가지고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상생과 환원을 위해 아너 가입을 결심했고, 앞으로 더 다양하고 많은 나눔을 실천하겠습니다.”



강원 68, 71호

김지자, 최경영 강릉 엄지네포장마차 대표

“소외된 이웃과의 나눔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고자 하는 마음을 실천으로 옮겼을 뿐입니다.”

- 중앙회** 조봉연 (주)팬아시아캐피탈 대표, 배건조 그린랜드 대표
- 서울 사랑의열매** 이대성 (주)토틸드 사내이사 회장
- 대구 사랑의열매** 서태민 서영 대표, 정재혁, 박진우, 익명
- 경북 사랑의열매** 권서영 충북교육청 정신과 전문의 원장



〈사랑의열매〉에 따뜻한 사연을 보내주세요

지난호 독자 의견



독서 기부로 나눔을 실천한 기사를 보여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나날에 나눔을 실천하는데 선뜻 나서지 못하고, 혹은 나누고자 하는 크기에 망설일 때 이 글을 읽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작은 나눔이 큰 기쁨이 된다"는 담임선생님의 말씀이 가슴 깊이 다가왔습니다. 이 좋은 기사를 읽은 후 스스로 용기를 내어 조그마한 나눔을 실천하는 것부터 하고자 합니다.

- 이종훈 서울시 영등포구

몸짱 검거왕 박성용 경사의 선행 소식을 접하고 동료 경찰관으로서 큰 배움을 얻었습니다. 박 경사는 어린 시절 빈곤한 가정환경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으면서도 운동을 열심히 하며 건전한 청년으로 성장해 이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는 근육질 몸매를 달려 화보에 담아서 시민에게 강인하고 건강한 경찰관 이미지를 전달하며, 달려 판매 수익금을 이웃을 위해 기부하고,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아주 건전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박 경사의 활약을 자극받아 저 역시 관내의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마음의 양식을 생울 수 있는 독서 지도 봉사자를 하고 싶습니다. 저 역시 어린 시절에 읽은 위인전에서 큰 감명을 받아 경찰관이 되었습니다. 제가 실천하게 될 독서 지도 봉사자 관내의 소외 청소년에게 커다란 정신적 울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한상운 서울시 중랑구

편안함에 푹튼 〈사랑의열매〉를 볼 때면 설레는 기분이 듭니다. 서둘러 비닐을 벗기고 첫 장을 펼칠 때는 마치 연애편지를 보듯 가슴이 쿵쿵 뛰곤 하지요. 요즘 우울한 일이 있어 힘들었는데, 박미향 기자님의 '먹을 수 있어 좋구나'를 읽으니 가슴속이 뽕 뚫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운 엄마 생각이 났기 때문이죠. 엄마처럼, 딸처럼, 딸스하고 포근한 맛, 진솔한 사랑이 느껴지는 기사였네요. 그동안 패스트 음식에 사로잡혀 있고 있었던 음식, 엄마가 가르쳐주신 소중한지만 소박한 배추적을 오늘 한번 만들어보려 합니다. 출근중에 시달리는 남편, 수험생 아들과 함께 사랑이 가득 담긴 넉넉한 배추적을 맛보아야겠어요. 오늘 또 한편의 귀한 책을 모으는 기쁨에 감사드립니다. - 윤정자 전남 순천시

이렇게 참여하세요

〈사랑의열매〉를 보시고 좋았던 기사나 의견을 보내주세요. 나눔에 대한 즐거운 추억이나 감동적 이야기, 〈사랑의열매〉에 전하고 싶은 말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더욱 알차고 따뜻한 〈사랑의열매〉를 만듭니다. 참여하신 분 중 세 분을 추첨해 선물을 드립니다. 보내주실 때에는 이름과 주소, 연락처도 잊지 마세요. **이메일** cckpr@chest.or.kr

독자 선물

독자 의견에 선정된 분에게는 문화상품권(2만 원)과 사랑의열매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담요



머그컵

머그컵은 발달장애인들이 그린 일러스트를 담았습니다. 총 네 가지 디자인으로 사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에코백

〈사랑의열매〉를 e-book으로도 만나보세요!



'사랑의열매' 홈페이지에서 〈사랑의열매〉 매거진을 볼 수 있습니다.

PC 홈페이지상단
공동모금회 → 홍보자료 → 출판 및 인쇄 → 회보
모바일 홈페이지 하단 회보
홈페이지 www.chest.or.kr

812,212명의 마음이 모여 사랑의열매를 만듭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기부자 812,212명의 소중한 나눔이 모였습니다.

사랑의열매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기부금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공정한 지원절차를 통해 작년 한 해 동안

844,383,307,080원을 도움이 필요한

29,699개의 기관과 **466,981**명에게 전하였습니다.



기부상담 080-890-1212
ARS기부 060-700-1212

총 지원금
8,443억 원
(비경상 배부 포함)

아동/청소년
1,160억

노인
707억

장애인
641억

·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997년 제정)에 의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법정 전문모금기관입니다.
· 이 공고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여성/다문화
359억

위기가정
947억

지역사회
4,427억

해외/북한/기타
202억